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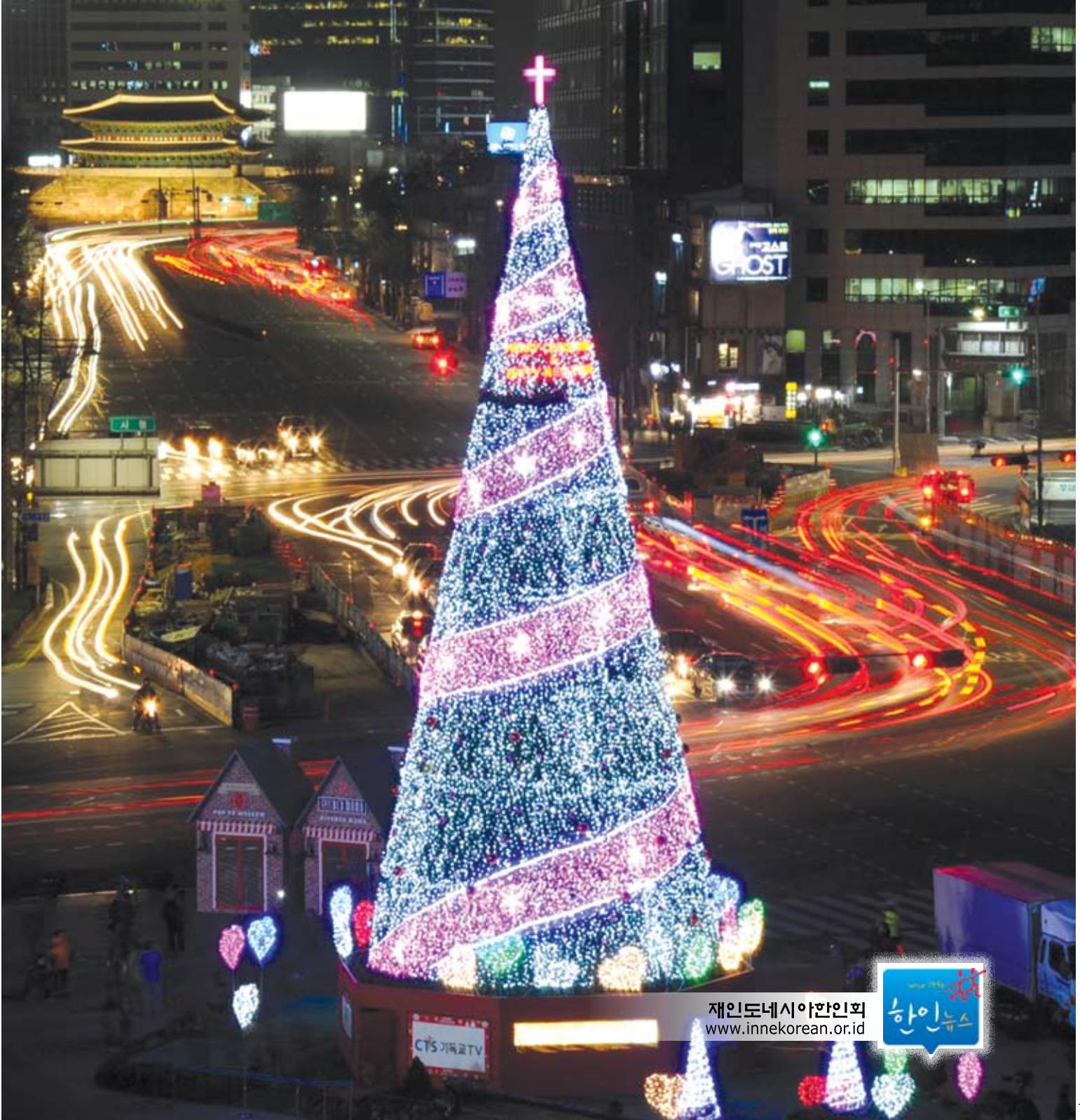
Korean News ·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한인뉴스

2013 12



VOL. 210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한국관광공사와 CJ도너스캠프가 함께하는

2013 글로벌 꿈키움 캠프 *in* INDONESIA



장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일시

2013년 12월 17일~19일

주최

한국관광공사, CJ도너스캠프



완벽한 휴식, 비즈니스와 품격이 공존하는 하늘 위 나만의 공간-
180도 완전 평면 침대형 좌석으로 내 집같은 편안함은 물론, 40여편이 넘는 영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음악CD를 제공하는 최첨단 개인형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으로
또 다른 여행의 즐거움을 드립니다. 대한항공과 함께 최상의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대한항공은 덴파사르에서 인천까지 매일 운항합니다.



스케일이 다른 편안함을 경험하세요

예약 및 문의 : 62-21-521-2180



동포 안내문

“더불어 사는 세상” 바로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입니다.

- 소통으로 하나되는 한인사회
- 나눔으로 축복받는 한인사회
-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더불어사는 한인사회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위의 3대 슬로건을 실천하기 위해
한인회장과의 만남의 장과 신문고 코너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한인사회 화합과 발전을 위하여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한인회장과의 만남의 장 (시간,장소 변경)

한인회 사무실 이전(대사관 영사동 4층)으로 2013년 12월 1일부터 면담시간과 장소가 새롭게 조정이 됩니다. 용무가 있으신 분은 사전예약을 하시기 바라며 점심(대사관 식당)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시간
매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한 시간 동안 (단,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
- 장소
한인회 사무실 (대사관 영사동 4층)

2. 신문고

한인회 홈페이지(www.innekorean.or.id)에 상설코너를 마련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사회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례 등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코너입니다. (단, 한인간의 험담과 모함, 비방은 절대 사절하며 한인간의 사업관계로 인해 발생된 문제는 관련 법률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한인회 사무실 이전 안내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사무실이 2013년 11월 9일부로
대사관 영사동 건물 4층으로 이전합니다.

출입시 보안카드가 필요하므로 방문시 사전연락 부탁드립니다.

전화,팩스 번호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소: KOREAN ASSOCIATION
Jl.Jend.Gatot Subroto Kav.58
Jakarta Indonesia

한인회 무료 법률 상담 안내

1. 상담자 :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 파산관리사

HP : 0816 1911 245

Tel : (021) 5296 0643

E-Mail : yisngmin@centrin.net.id

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4시

장소 : 코리아센터 202호

KOREA CENTER BUILDING LT.2

Jl. Jend.Gatot Subroto Kav 58 Jakarta 12950

2. 상담자 : 이 소 왕 변호사

HP : 0816 846 631

Tel : (021) 520 7153

E-Mail : doowang@cbn.net.id

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3~5시

장소 : ADHI GRAHA (SURVEYOR INDONESIA) 1701호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3. 상담자 : 김 민 수 변호사

HP : 0816 794 257

Tel : (021) 797 6254

E-Mail : ms@paklawfirm.com

시간 : 매주 금요일 오후 3~4시

장소 : 코린도 사무실 5층

WISMA KORINDO LT. 5

Jl. MT. Haryono Kav 62 Jakarta

<상담 에티켓>

상담업무의 효율 증진을 위하여 법률상담을 희망하시는 분은
해당변호사에게 사전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포 안내문

2013.11.8(금요일)

제 목 : 가족관계 등 증명서 발급 서비스 개시

그동안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국제우편비용 부담이 있는 등 많은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협력해 온라인시스템(공인전자우편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서비스를 확대 실시합니다.

이에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영사과는 오는 11월 18일(월)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을 개시하여 교민 여러분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발급 증명서 종류, 발급절차, 신청대상자, 구비서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 발급서비스 개시일 : 2013.11.18(월)
 - 발급 증명서 종류
 - 등록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입양관계/친양자입양관계)
 - 일부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입양관계/친양자입양관계)
 - 종전 “호적법”에 따른 제적 등·초본
 - 발급 수수료
 - 제 증명서 및 제적등본 : Rp 30,000(통당)
 - 제적초본 : Rp 25,000(통당)
 - 수수료의 징수·정산은 환율변동추이 및 송금수수료를 감안하여 변동가능
 - 발급 소요기간 : 1-2일
 - 신청 대상자 및 구비서류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 신청서, 발급대상자 및 방문인의 신분증 원본과 사본
 - 형제, 자매 : 신청서, 발급대상자 및 방문인의 신분증 원본과 사본, 정확한 등록기준지(본적)를 알아야 신청가능
 - 기타 대리인(한국인만 가능) : 신청서, 위임장(별도양식), 발급 대상자와 방문인의 여권 원본과 사본
 - ※ “신분증”이라 함은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당사자의 사진이 첨부되고,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단, 위임하여 대리인이 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인과 위임을 받는 자의 여권원본, 사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여권상 서명 확인)
- ※ 신분증 사본은 사진이 잘 보이도록 잉크 농도를 조절하여 진하지 않게 복사

하여야 합니다. 사진 혹은 인적사항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 신청서류가 반송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부여된 적이 없는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등록기준지(본적)를 알아야 합니다.

※ 신청서 및 위임장 서식 : 당관 홈페이지(<http://idn.mofa.go.kr>) -> [영사] -> [가족관계]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접수 및 수령방법

: 방문접수 및 수령만 가능,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별도양식)과 발급대상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구비

※ 우편접수 및 수령 불가

또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에서 인터넷 발급신청(공인인증서 필요) 가능

1. 인터넷 발급방법

- 홈페이지 : <http://efamily.scourt.go.kr> 접속
- 위의 홈페이지 접속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진행

2. 수수료 : 무료

3. 발급소요기간 : 즉시발급

4. 발급받을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종류

- 등록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입양관계/친양자입양관계)
 - 일부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입양관계/친양자입양관계)
 - 제적 등·초본
- (※ 과거 수기로 작성한 제적부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제 목 : 여권신청시 영사과에서 여권사진 촬영 가능

대사관 영사과는 오는 11월18일(월)부터 외교부의 여권업무 선진화 시범사업인 “전자여권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 과 “여권신청 전자서명” 을 실시합니다.

1. “전자여권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 은 대사관 영사과 여권발급 창구에서 직접 사진을 촬영하여 여권용 얼굴영상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여권신청 민원인이 일반 사진관에서 여권사진을 촬영하는 번거로움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전자여권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진촬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흰색상의를 착용해서는 안 됩니다.

※ 희망 시 여권사진 직접 제출가능

2. “여권신청 전자서명” 은 여권신청 민원인이 기존의 복잡한 여권 발급신청서 대신 간이신청서(영문성명, 주소, 연락처 등 기재)를 작성, 전자서명패드를 이용한 전자서명만으로 여권을 신청하는 제도로 신청서 작성이 간소화됩니다.

Tel : 021-2967-2580, Fax : 021-2967-2581,
당직폰 : 0811-852-446 (<http://idn.mofa.go.kr>)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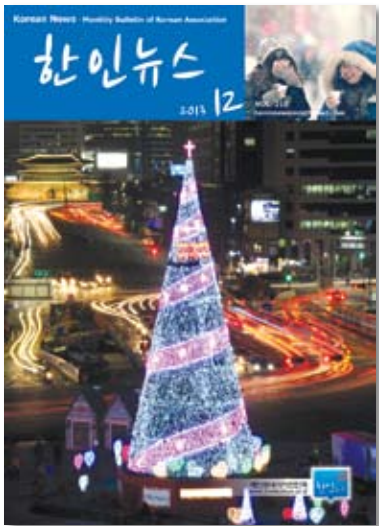
전 화 : 021-521-2515

한인뉴스발행인 신 기 업 배상

차례.....8

이모저모한인사회.....10

- 연평도 무력공격3주기 규탄대회
- 대사관, 수라바야 지역 경제 간담회
- KOICA 사후관리 프로그램 컨퍼런스
- 2013 ASEAN 대양주 공관장회의
- 한-인니 외교40년사
- KOWIN 인도네시아 지부 제6기 출범식
- 민주평통 워크샵
- 삼성, 장학금전달식
- SMART WORK를 위한 협업솔루션
- 자바팔레스호텔 개관식
- 자총련 규탄대회
- 통일부 정책 설명회
- 세계한상대회



서울 광장 성탄트리 2013
디자이너 : Diki Satria Nugraha @dqdoodle

한해가 또 저물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인니수교40주년을 맞이하여
다채로운 행사들이 숨가쁘게 이어졌습니다,

얼마나 다른이들과 소통하며 살았는지
되돌아 보게 됩니다.

곧 서야 할 새로운 무대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버리고 무대에 서는 연습을
해야한다고 했듯이. (이리아콘서트 이야기에서)

haninnewsinni@gmail.com

0818711246

편집장 홍석영

11월 월간 경제 브리핑	드라마에서 배우는 BAHASA <허영순>...42
문학과 사람	
2014 경제 전망 세미나	여유로운 노후를 위한 특급조언.....44
KOIKA 국제 계발 협력 컨퍼런스	
산림바이오매스 시범사업	땅어랑 반튼 한인회 소식.....46
SK 네트워크	
CBMC 교회 친선 탁구 대회	CNN한국의 명소50.....48
서예전	
아세아 한인회총연합회	행복에세이 <서미숙>.....50
선수단 해단식	
JIKS 소식	내 마음의 뜰 <시/그림:이태복>.....53
JIS 소식	
토요문화학교체험	Jalan-Jalan Jakarta/묘비박물관 <사공경>...54
2013 화이트 콘서트	
'탈'공연	계약법 <이승민>.....58
이희아 콘서트	
인도네시아 약용식물 (사랑스물) <백진협>.....38	인도네시아 경제 전망 <신성철>.....62
기업탐방 (CJ 인도네시아).....40	화 소 도.....64
	12월의 영화 추천작.....70
	생활정보

발행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발행인 : 신기엽 / 편집인 : 조규철 / 논설위원 : 김문환
 편집장 : 홍석영 / 편집위원 : 김재민, 최양기, 엄종한, 황윤홍 / 취재기자 : 전민규
 전 화 : (021) 521-2515, 527-2054 / 팩 스 : (021) 526-8444
 주 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 이 메 일 : haninnewsinni@gmail.com

*** 웹사이트(<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3주기 인니 한인동포 성명서

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대한민국 연평도를 향해 기습적으로 포탄 170여발을 포격, 해병대원 2명이 전사하고 민간인 2명이 사망하였다. 이 날은 6·25전쟁 정전 이후 최초로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를 직접 공격해 민간인이 사망한 날이다.

한 때 우리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아사 직전의 북한 주민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줬지만 이들을 도와 준 결과는 연평해전, 천안함 피폭, 연평도 포격과 같이, 피를 나눈 동족에게 행할 수 없는 야만적인 테러 행위로 돌아왔음을 기억한다.

이러한 일련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이를 오히려 북한을 자극한 우리 정부의 잘못이라 비난하며 북한을 두둔했던 중북세력이, 진보정당의 허울을 쓰고 국회에까지 진출하여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국가전복을 꾀하는 일이 발생하였음이 실로 통탄스럽기까지 하다.

2년전 정권을 세습한 북한의 김정은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의 삶은 도외시한 채 핵개발에 광분하면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3년전 연평도 무력도발의 충격과 분노를 되새기며, 인도네시아 5만 동포를 대신하여 천인공노할 군사공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은 국제법과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침략행위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만행임을 강력히 규탄한다.

1.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중단, 대남도발과 위협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변하는 것만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자각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북한의 3대 세습, 핵개발, 인권유린에는 침묵한 채 이들의 도발과 만행을 옹호하며 국가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우리 사회내 중북세력의 반국가적 작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1. 우리는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깨닫고 2세, 3세들의 안보교육에 앞장설 것이며, 또다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을 위협하는 도발이나 침략이 있을 시에는 5만 인도네시아 동포가 하나되어 강력하게 응징할 것임을 다짐한다.

2013년 11월 22일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원 일동





연평도 무력공격 3주기 규탄대회

재인도네시아 한인회(회장 신기엽)와 민주평통 아세안지역회의(부의장 승은호), 민주평통동남아남부협의회(회장 박동희), 한국자유총연맹 인니지부(회장 현상범)은 22일 코리아센터 문화회관 2층에서 한인동포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의 연평도 무력공격 3주기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은 연평도 포격 도발은 1953년 정전 이후 처음으로 우리 영토에 포격을 가한 사건으로, 연평도에 선전포고도 없이 북한이 수백발의 포탄을 날리어 해병대 2명과 민간인 2명이 희생당하며 수십 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던 연평도 폭격 3주기가 되는 날이다.



참석한 전 교민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는 대회를 갖고, 다시는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통같은 방위태세 확립과 인도네시아 동포가 하나 되어 강력하게 응징할 것을 다짐하였다.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을 본격화한 북한이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 서해 연평도의 우리 해병대 기지와 민간인 마을에 해안포와 곡사포로 추정되는 포탄 100여 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이번 포격 도발로 인해 해병대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민간인은 2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했다. 1953년 7월 휴전협정 이래 민간을 상대로 한 대규모 군사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 당국은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고, 교전규칙을 전면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2010년 11월 28일~12월 1일 서해 인근 우리 영해와 공해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이 실시된 데 이어 12월 20일 연평도에서 사격훈련이 실시됐다.

대사관, 수라바야 지역 경제간담회 개최



주 인도네시아대사관은 재동부자바 한인회와 공동으로 20일 주도 수라바야에서 이 지역의 우리 기업 경제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도네시아 노동과 국세 정책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경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영선 주인도네시아대사를 비롯하여 박영식 공사, 강성팔 국세관, 김용운 노무관, 한인회에서 신명용 수석부회장 등 한국 기업인, 인도네시아측 인사로는 알 이르샤드 동부자바 노동과장, 원요또 신발협회 동부자바지부 회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김 대사는 인사말에서 “글로벌은 물론 인도네시아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 있고, 과격한 노조활동, 규제 및 투명성 제고 추세 등으로 인도네시아 내 경영환경이 어려워 지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의 노동과 국세 정책을 이해하고, 최저임금 문제 등 당면한 노동 문제에 잘 대처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르샤드 노동과장은 우리 기업의 최대 관심사인

최근 동부자바 지역의 노동 정책 및 최저임금 문제 동향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우리 기업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했다.

원요또 회장은 신발과 봉제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권익을 위해 주정부와 협력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오후 세션에서는 김용운 노무관과 강성팔 국세관이 각각 최근 인도네시아의 노동과 조세 정책 동향 및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박영식 공사가 인도네시아 CSR 활동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 후, 김현우 미원인도네시아 부장이 미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CSR 활동 사례를 소개하면서 바람직한 활동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대사관 관계자는 “이번 경제간담회는 ‘찾아가는 우리기업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원거리에 소재하여 평소 접촉이 어려운 수라바야지역에서 개최됨으로써,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애로사항 해결, 역내 지방정부 및 산업계 인사들과의 네트워크 형성 및 CSR 활동 전개 등 기업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데일리 인도네시아]

KOICA-인니경찰청-한국 국립경찰대학, 치안역량강화과정 사후관리 프로그램 컨퍼런스 개최



자카르타 선언문 발표 사진

우리나라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김영목)은 11월 11일부터 15까지 닷새에 걸쳐 치안역량강화과정 사후관리 프로그램 컨퍼런스를 인니경찰청 및 국립경찰대학과 함께 자카르타 암브하라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 김병관 사무소장과 경찰대학 김재규 경찰학과장, 이희성 경찰영사, NCB 인터폴 Mr. Sugeng Priyanto 인도네시아 경무관, 이밖에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아시아 5개국에서 KOICA 연수 프로그램을 수료한 연수생 등 다수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컨퍼런스는 12,13일 양일 동안 사이버범죄 대응 능력역량강화, 과학수사 역량강화, 범죄예방 역량강화, 경찰행정 역량강화 총 네 개의 세션별 토론을 진행 후 생성된 결과를 바탕으로 동남아 경찰의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한 자카르타 선언문

(“JAKARTA Recommendation”)을 14일에 채택했으며, 15일 참석자들은 인니 경찰청 및 인도네시아 국립경찰대학 등의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경찰의 치안역량강화 방안과 지속적인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금번 컨퍼런스에서는 개발도상국가의 연수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자국의 치안 노하우와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각국의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현업적용 가능한 액션플랜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KOICA는 본 컨퍼런스 이후에도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온라인 자문 프로그램 역시 활성화 시켜 연수기관의 사후 관리 과정이 원활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앞으로 한국 경찰의 효율적인 치안 강화방안을 전수함으로써, 한국 경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ASEAN 대양주 공관장회의 개최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발리민주주의포럼(11.7) 참석을 계기로 2013.11.8(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ASEAN·대양주 공관장회의를 주재하였으며, 동회의에는 주ASEAN 공관장을 포함, 동남아 및 대양주 공관장 18명이 참석하였다.

[참석공관장]

- ASEAN 회원국 및 여타 동남아국가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상 ASEAN 10개국), 아세안대표부, 동티모르
- 대양주국가 : 뉴질랜드, 피지, 파푸아뉴기니, 시드니(총영사), 멜번(분관장), 오클랜드(분관장)

이번 회의에서 조태열 제2차관은 우리 신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신뢰외교, 세일즈외교, 중견국외교)에 대한 발제를 통해 외교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외교기조가 성과를 고양할 수 있도록 공관장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실현방안을 토론하였다.

또한 △2013년 ASEAN관련 정상회의 성과 및 2014년 12월 한-ASEAN 특별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 △對ASEAN 외교관계 강화, △對대양주 외교관계 강화, △동남아지역 세일즈외교 강화를 중심으로 발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세일즈외교 세션에서는 동남아 현지에 진출한 기업인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여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관련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자리였다.

외교부대변인



『한국-인도네시아 외교 40년사』 발간기념간담회

40년의 한-인도네시아 발자취 재조명하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및 동포사회 편찬위원들로 구성된 편찬위원회가 한-인도네시아 수교 40주년의 역사성을 알리고 향후 외교 50년사 등 후속사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의미로 발간한 『한국-인도네시아 외교 40년사』 간담회가 19일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선 대사, 승은호 한인회명예회장, 신기엽 한인회장, 김문환 한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을 포함, 주요 언론사들이 참석했다.

김영선 대사는 “한-인도네시아 관계는 정치,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방산 협력에 이르기까지 최상의 관계로 발전했다”고 강조하며 “이것은 무엇보다 우리 진출기업들의 노력과 활약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김 대사는 “한-인도네시아 수교 40주년인 올해, 지난 40년간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차원의 협력 관계로의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며 “이번 『한국-인도네시아 외교 40년사』 발간을 통해 지난 40년간의 양국 관계의 발자취를 조명한다”고 말했다.

이번 『한국-인도네시아 외교 40년사』 발간을 위해 발족된 편찬위원회는 직접 텍스트 작성, 사진 및 문서수집 등 편찬작업에 참여하며 국가기록원, 외교부 자료 검토작업, 한인원로 및 언론사, 기업들에 사진협조요청을 했다.



또한 한-인도네시아 관계 발전사를 4개의 시기(태동기: 이천희 서기관, 초창기: 이인호 총영사, 발전기: 전조영 참사관, 성숙기: 고경민 서기관)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 집필자를 선정하여 텍스트를 작성했다. 이 책자는 지난 10월 중순 박근혜 대통령 인도네시아 국민방문 후 관련내용 추가 보완작업을 통해 이달 13일 최종본이 출판되었다.

양국 관계에 있어 높은 사료적 가치를 지닌 이번 『한국-인도네시아 외교 40년사』 발간은 인도네시아 및 동남아 관련 기관, 대학, 연구소 등의 연구활동에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한편, 김 대사는 “우리 기업의 활약상을 재조명하는 의미에서 코트라 및 한인상공회의소와의 공동 발행으로 ‘우리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이야기(가제)’를 기획하고 있다. 업종별로 역경을 이겨낸 주요 기업들의 성공담이나 안타까운 경험 등을 되짚어봄으로써 인니 진출 기업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함은 물론 향후 진출 기업들에게 귀중한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인도네시아 지부 제6기 출범식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re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 회장 박현순, 이하 코윈) 인도네시아 지부 제 6기 출범식이 김영선 대사, 홍혜선 명예고문(김영선 대사 부인), 신기엽 한인회장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일 자카르타 롯데 쇼핑 에비뉴 아이스펠리스홀에서 개최하고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코윈은 국.내외 여성 및 세계 각 지역 한민족 여성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구성된 여성가족부 산하 단체다.

이날 코윈 출범식은 코윈 인도네시아 지부 박현순 회장의 이순재 전임회장 감사패 수여 및 신입회장 사업발표, 회원과 임원 및 멘토소개, 홍승용(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덕성여대 총장 강연, 최창식 하나은행장 강연 순으로 이어졌다.

또한 코윈 인도네시아는 이날 한국의 덕성여대 및 자카르타경제일보와 MOU도 체결하며 상호협력하에 창의적 우수인재 양성을 통한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로 합의 했다.

박현순 회장은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던 인도네시아 한인 여성인재들의 연대 강화와 상호교류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며 “무한한 잠재력과 가

능성이 사회와 자신을 위해 발휘되는 여건을 만들어 우리를 가로 막고 있는 편견과 사회문제들을 극복하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겠다” 고 말했다.

코윈관계자는 정회원, 차세대, 주니어(고등학생) 등 세 단계의 회원으로 구분되어, 경험과 정보를 나누는 회원 간 네트워크 강화, 취업 알선 및 여성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멘토 역할과 대학진학을 앞 둔 고교생들의 진학상담 및 전공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생생토크 시간에는 포스코 까라까다우의 박승대 부장, CJ 인도네시아 법인 신희성 부장, 롯데 에비뉴 신주현 부장, 코린도의 우태규 차장, P.A.K 로펌의 김민수 변호사가 참석하여 현재 취업을 앞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13년 인도네시아 본부 워크숍



워크숍 참석 자문위원 (왼쪽상단 강제영, 김문환, 전민식, 홍권표, 안선근, 최병우, 하단 현병선, 박현순, 이희경, 박동희, 장미숙, 이지완, 안주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13년 인도네시아 본부 워크숍 8천만이 행복한 통일을 향한 작은 걸음 지난 11월 23일, 24일 양일간 뽀짝에서 제 16기 민주평통 인도네시아본부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모임은 앞으로 자문위원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세부활동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평화통일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의견이 오갔고 개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해보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인도네시아 근대역사 - “Seokarno 와 일부다처제” 라는 제목으로 김문환감사의 특별강연이 있었고 엄석준 박사님의 유용한 의학상식 강연도 있었다.

워크숍의 주요내용으로는 북한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관련 영상상영이 있었고 분임토의를 통한 다양한 의견교환을 통해 자문위원 실행과제가 도출되었다.

제 16기 민주평통 주요 활동계획으로는 남북관계가 교역할로서의 인도네시아 주요인사 물색, 주요인사를 초청하여 한인니 평화통일 포럼 혹은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통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차세대대를 위한 지원을 다각적으로 확대하여 보다 쉬운 문화적 접근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심여를 기울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차세대통일리더쉽 캠프와 북한 이탈자 초청공연, 통일 글짓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JIKS에 장학금 전달

12월 3일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이하 JIKS, 교장 김승익)에서 삼성전자가 지원하는 대학입학 지원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다. 이에 따라 현재 12학년 학생 중 2명이 선발되어 각각 미화 2,500불의 장학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smart work를 위한 협업솔루션 활용방안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인 가온아이(대표 조창제 www.kaoni.com)는 ‘smart work를 위한 협업 솔루션 활용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15일, 센트리파크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전자결재, 포탈, 모바일 등 기업에서 꼭 갖춰야 하는 보안과 함께 인도네시아 상황에 맞는 UC 환경 구현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면서 비용절감 효과까지 거둘 수 있는 필요한 정보를 소개했다.

그 외에 준비해야 할 기업의 미래 환경, 앞으로 업무 환경에 있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기업용 솔루션의 트렌드를 제시하는 것과 함께 최근 주목 받는 통합커뮤니케이션과 협업솔루션을 활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비용 절감 및 업무환경의 발전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여주며 코린도 그룹의 구축사례를 소개하였다.

조창제 대표이사는 “비용절감과 업무생산을 높여주기 위한 회사”임을 강조하며 “타국에서의 경험과 국내에서 검증된 기술력과 산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에서도 업무 고민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세미나 관계자는 “업무의 대부분을 보고 및 문서



작성, 회의, 커뮤니케이션, 정보 검색 등임을 감안할 때 업무환경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하였다.

가온 아이는 90년대 초반부터 협업지원 솔루션 분야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축적해 온 전문 인력들이 주축이 되어 웹 기반 그룹웨어, 지식기반 협업 솔루션, 차세대 통합 커뮤니케이션 솔루션, 모바일 오피스 등 구축형 솔루션 뿐 만 아니라, SaaS형 그룹웨어, 클라우드 기반 그룹웨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소프트웨어 전문 개발 기업이다.

자바팔레스 호텔 개장기념 태권도시범

11월5일 자카르타근교 찌까랑 자바 팔레스 호텔 볼룸에서 찌까랑 한인회 창립2주년과 자바팔레스

호텔개장을 기념하여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단장 나일한)을 초청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양영연대한체육회 인니 지부 회장은 환영사에서 “태권도의 기본 정신인 정신수양과 체력단련을 배우고 익혀 자기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규철 인도네시아 태권도 후원회 회장은 “런던 올림픽때 시범을 보인 이번 시범단은 어제 인도네시아 특전단을 방문한 태권도 시범에서도 환호와 갈채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찌까랑 한인태권도 도장인 천지인 (사범:이상만) 수련생 40여명은 그간 배운 태권도를 선보여 참석한 주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자바팔레스 호텔 개관식

한국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처음으로 건립한 4성급 비즈니스호텔 ‘자바 팔레스 호텔(Java Palace Hotel (대표 박재한)’ 이 개관했다.

11월11일 오전 11시, 김영선 한국대사, 승은호 코린도그룹 회장, 신기업 한인회장, 송창근 재인니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기업이 밀집한 짜카랑 산업 지역에 위치한 자바 팔레스 호텔(대표 박재한)의 개관식이 있었다.

인도네시아에서 처음으로 한국인이 투자해 운영하는 ‘자바 팔레스 호텔(Java Palace Hotel)’은 지난 2012년 7월 기공식을 하였다. 총 3천만 달러가 투자하여 25,000㎡의 부지에 지상 11층, 지하 1층, 전면적 15,000㎡ 규모의 호텔로 객실 151개와 식당, 회의시설, 수영장, 사우나, 스포츠 센터, 골프연습장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췄다.

김영선 대사 “아무도 가지 않았던 호텔업의 첫걸음을 축하하며 새로운 시도가 새로운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한인회 신기업회장은 “11월 11일 11시 11분에 오픈하였으니 빠른 시일 내에 11개의 체인점을 오픈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한인상공회의소 송창근 회장 “성공이란 것은 본인의 비전을 이룬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 며 “그런 의미에서 박재한 사장님은 성공한 사람이며 행복을 담을 수 있는 호텔이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박재한 대표는 “현재로서는 부족함이 많지만 앞으로 인도네시아는 물론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친환경 호텔로서 새 지평을 열어 나갈 것” 이며 “국제비즈니스 호텔에 걸맞게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로 삼겠다” 라고 말했다.



정의구현사제단 규탄대회



12월3일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 회원들 및 한인동포들은, 지난 11월 22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입장을 취하는 등 국론분열을 야기하는 발언을 규탄하는 모임을 자카르타 코리아센터에서 가졌다.

이날 규탄대회에서는 “일부 천주교 성직자들이

연평도 및 천안함 희생의 의미를 왜곡하는 것은 국가를 지키다 순직한 국군장병과 유가족을 모독하는 것이며, 정의구현사제단은 국론분열을 초래하는 평향된 태도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종교인 본연의 역할에 충실 할 것을 당부한다” 고 강조하고, 다같이 “나라사랑 한마음” 구호를 외쳤다.

통일부 정책 설명회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통일부 이덕행 통일정책협력관은 6일 수요일 대사관, 한인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유총연맹위원들과 자카르타에서 만찬을 겸한 통일에 대한 교민들의 의지를 결집하기 위한 정책 설명회를 가졌다.



이덕행 통일정책협력관은 최근의 남북관계 현황과 정책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특히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이라며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작은 것에서 시작하여 크게 이루어나가고자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안선근 민주평통 아세안지역회의 간사는 “개성공단과 같은 평화공단을 만들어 각 나라의 상징적인 기업인을 유치하여 탈북자, 외국인 근로자 등을 보호해 나가자” 고 제안하였다.

설명회에 참석한 민주평화통일과 자유 총연맹위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준비에 공감하며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국민의 지지를 결집할 수 있도록 많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세계한상대회 광주서 개막...한상 1천여 명 참가

제12차 세계한상(韓商)대회가 29일 오후 광주광역시에 있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창조경제를 이끄는 힘, 한상 네트워크’란 슬로건 아래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한민족의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열리는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장(場)이다.

전 세계 재외동포 경제단체가 주최하고 재외동포재단 등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해외 44개국 1천여 명의 한상과 전남·광주 지역을 비롯한 국내 2천여 명의 기업이 참가했다.

올해 대회의 대회장은 미국 두라코트프로덕트그룹 홍명기 회장이 맡았다.

또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김우재 회장, 중국한국상회 장원기 회장, 동남아한상연합회 송창근 부회장, 중남미한상연합회 최태훈 회장, 재미한인여성경제인총연합회 그레이스 한 회장, 국제한인식품주류상총연합회 허성철 회장, 카자흐스탄고려인연합회 김로만 회장, 미국 코리아 IT네트워크 장석원 회장 등이 공동대회장에 이름을 올렸다.

호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올해 대회에는 일본의 한창우 마루한 회장, 최종태 야마젠그룹 회장, 라오스의 오세영 코라오그룹 회장, 오스트리아 박중범 영산그룹 회장, 말레이시아의 권병하 헤니권코퍼레이션 회장, 미국의 고석화 월셔은행 회장, 임창빈 창텍스트레이딩 회장, 문대동 삼문

그룹 회장, 조병태 소네트 회장, 홍성은 레이니어 그룹 회장 등의 거상(巨商)이 자리를 빛냈다.

이날 개회식에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강운태 광주광역시장, 홍명기 대회장,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 등 주요 인사와 동포 경제인 1천여 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은 한상기(韓商旗)의 입장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개회 선언, 대회사, 주제 공연, 대회 소개 영상 상영, 국무총리 축사, 환영사, 최문기 장관의 기조강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규형 이사장은 개회 선언을 통해 “이번 대회를 통해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더 확대하는 데 역점을 두고 내외 동포 경제인들의 비즈니스 확대를 지원할 것” 이라고 약속했다.

정홍원 총리는 축사에서 “한상대회는 지난 12년간 한민족 비즈니스 네트워크로 자리 매김했다”며 “모국의 경제 및 안보적 상황이 불안정한 이때 우리 한상들이 참여하고 기여할 잠재력은 매우 클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총리는 “정부는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를 확충해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강화가 여러분의 비즈니스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며 “이런 노력이 거주국에서 더 큰 성과를 얻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기대했다.

< 연합뉴스 >

(11월) 월간 경제 브리핑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 DNI 빗 장 열다 〈투자네거티브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확대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성장둔화를 해소하겠다는 목적으로 투자네거티브리스트(DNI)를 전면 수정했다. 수정된 2013 DNI에서는 그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빗장을 걸어놨던 항공, 항만 부문을 전면 개방해 외국인 지분율을 100%까지 확대했다. 한편 제약, 통신, 관광, 영화배급 부문의 개방도 확대될 전망이다. 하따 장관은 “제약부문은 기존 75%에서 확대된 85%까지 외국인 지분율이 늘어났다. 통신은 45%에서 65%로, 관광은 49%에서 70%까지 확대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영화배급산업은 기존 국내 투자자들에게만 독점되었던 부문으로 이번에 처음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허용된 부문으로 49%까지 지분소유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따 장관은 “앞으로 DNI 수정이 계속 진행될 것이며 더 많은 부문의 개방이 확대될 것이다”라고 밝히고 “그간 규제가 심했던 주류생산 부문의 규정을 완화해서 주류 생산 라인을 확대해 주류 수입을 축소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투자조정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로컬 투자자들의 총 국내 직접투자는 전년 동기에 비해 33% 늘어났다. 한편 외국인 직접투자는 3년래 최저 수준인 18.4%에 그쳤다. 3분기 총 투자 실현액은 293조 루피아였으며 총 41만 1,543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 11월 7일자 참고 >

수입소득세 2.5%→7.5%로 인상

인도네시아 정부는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재무부의 주도하에 수입품에 부과되는 소득세를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입자인 증번호(API) 취득 기업에 부과되던 수입소득세(PPh-22)가 2.5%에서 7.5%로 인상된다. 종전에는 무역부로부터 수입인증번호(API)를 받은 기업들은 수입소득세 2.5%를 지불하고, API 미취득 기업들은 7.5%를 지불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에 따라 API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들이 동일하게 7.5%의 수입소득세를 지불해야 한다. 새로운 규정을 적용 받게 되는 수입품목은 식료품을 제외한 소비재이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인도네시아 20일자에 따르면 밤방 브로조네고로 재정부 차관은 “인상된 소득세가 적용되는 상품은 식료품을 제외한 소비재이며 이로 인해 수 백 가지의 수입품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침과 함께 정부는 또한 재수출 목적의 수입 장려정책(KITE)을 통해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원자재의 수입세를 면제하여 수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수입 소득세 인상 정책은 수입을 억제하고 세수는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론적으로 수입소득세 인상정책으로 무역 균형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소비재상품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국내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수입 억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11월 20일자 >

신차판매 호조 1월 부터 10월까지 지 100만대 돌파

동남아 최대 자동차시장인 인도네시아에서 금리 상승과 유가 인상 등의 악재에도 판매 호조가 이어져 1월부터 10월까지 100만대 이상의 신차가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인도네시아 자동차산업협회(GAIKINDO)는 8일 1~10월 자동차 판매 대수가 101만8천786대로 잠정 집계됐다고 이은 지난해 같은 기간(92만3천71대)보다 10.4%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자동차 업계와 시장의 전망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 이 추세가 계속되면 올해 자동차 판매대수는 120만대로 지난해 기록한 110만대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체별 판매 대수는 도요타가 35만7,332대로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다이하쓰가 14%증가한 15만4,156대, 스즈키가 30%증가한 13만4,428대, 미쓰비시가 6%증가한 13만1,407대, 혼다 7만6,888대, 닛산 5만2,712대 순으로 이어졌다. 한편 소형 고연비 차량에 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정부의 저비용환경자동차(LCGC) 정책으로 1억 루피아(약 940만원) 저가 차량 판매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LCGC는 연비 20km 이상, 국내 부품 비율 90% 이상인 차량에 대해 자동차 특별소비세를 25~100% 감면해주는 친환경자동차 산업 육성정책이다.

< 11월 11일자 >

인도네시아 국산EV, 오는 2016 년 생산 가능 전망 <전기자동차>

구스띠 무하마드 하마 연구기술장관은 지난 22일 “오는 2016년 국산전기자동차(EV) 생산이 실현가능하다”는 전망을 밝혔다. 구스띠 장관은 “추가적인 시험주행은 중부자바 솔로, 동부자바 수라바야, 서부자바 반둥 그리고 자카르타에서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현지언론 자카르타포스트 23일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기자동차의 대중교통 적용을 우선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 상용화를 위해서는 배터리 등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개발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특히, 연비효율이 좋은 소형 배터리 개발이 가장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시험주행용 전기자동차로 스포츠 세단 ‘셀로(Selo)’, 다목적차량(MPV) ‘겐디스(Gendhis)’, 시티카로 총 3개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 모델 개발은 총 9단계로 진행되는데, 현재 7단계가 끝나가는 상황으로 곧 8단계에 진입한다. 구스띠 장관은 2015년에 정부관계자 대상으로 생산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한다. 일단 시험단계에서는 전기배터리를 해외로부터 조달중이나 전기차량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국내 배터리 기술개발이 관건이다.

< 11월 25일자 >

자카르타
경제일보

Jakarta Biz Daily
Patra Office Tower 15th Fl 1501A
Jl. Jend. Gatot Subroto Kav. 32-34
Jakarta Selatan 12960





〈문학과 사람〉출판기념회 한국문인협회인도네시아 지부 인준식



11월7일, 재인니한인문인협회(회장 사공경)는 한국문화원에서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인준식과 동인지 ‘문학과 사람’ 출판기념회를 자축하는 시낭송회와 시화전을 가졌다.

재인니한인문인협회는 재인니문협으로 2001년에 창단되어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 지부로 인준 받아 단체의 틀을 갖추고 회원작품집 ‘문학과 사람’의 창간호를 발간하였다.

사공경 지부장은 인사말에서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 지부는 스스로 길이 되어 걸어가는 문학과 사람, 사람과 문학이 되겠다”며 “문학을 통해 마음을 나누고 싶은 모든 분들을 문인협회로 초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문인협회 정종명이사장은 영상을 통해 “첫 선을 보이는 문학과 사람이 인도네시아 지역에 그치지 말고, 동남아를 무대로 발판으로 세계로 뻗어 가는 큰 문학지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지부 인준 축하메시지를 보냈다.

창간호 편집을 맡은 박정자씨는 “처음 발간을 계획하고 원고를 받을 때만 해도 회원이나 작품 수가 많지 않아서 몇몇 사람만의 책이 되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회원들의 열성적인 참여에 다양한 임을 거리가 있다”며 물심양면으로 후원에 주신 분들 감사를 표했다.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헤리 다르소노씨는 행사의 초대 손님으로 참석하여 자작시 낭송과 축하 피아노 연주로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또한 이석창씨가 부른 가곡 ‘가고파’와 엄현숙씨의 모노드라마 ‘엄마는 오십에 바다를 발견했다’도 감성을 여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 지부는 회원 상호간의 우의를 통하여 개개인의 창작의욕과 자기발전을 도모하고, 한인사회의 일원으로써 재인니 한인사회의 화합과 문화교류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목적으로 결성된 문인들의 모임이다.



하나금융그룹 '2014 경제전망 세미나' 개최

하나금융그룹은 28일 자카르타 물리아 호텔에서 '2014 경제 전망 세미나' 를 개최하여 대사관, 한인회, 한국 기업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세계경제 흐름을 전망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안돈 구나완 다나몬은행 수석 경제연구원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들에게 '2014년 인도네시아 경제 전망' 이라는 주제로 인도네시아 경제의 흐름에 대해 발표하며 "올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양적완화 축소가 단행된다면, 루피아.달러 환율이 일시적으로 12,000루피아를 넘을 수도 있지만, 이후 안정을 찾아 내년 하반기에는 환율이 10.858루피아가 될 것" 이라며 내년 인도네시아 경제 전망에 대해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펼쳤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영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의 '선진국 경제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제 전망' 을 주제로 한 발표와 정유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의 '발전과 퇴보의 갈림길에서의 아시아 경제 전망' 이란 주제로 강연이 이어졌다.

정유탉 연구원은 "중국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 이며 "아센(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견조한 내수와 대외환경 개선에 따른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성장세는 이어질 것" 이라고 전망했다.

김영준 연구위원은 "미국의 양적완화(QE) 축소에도 불구하고 주요통화에 대한 달러화의 일방적인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은 제한적" 이라며 "2014년 글로벌 경제는 선진국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가운데 중국 등 신흥국의 회복세도 가시화 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 이라고 글로벌 실물 경제의 흐름에 대한 전문가의 심도 있는 분석을 제시했다.

KOICA-서울대 국제개발협력 석사학위과정 사후관리 현지 컨퍼런스 개최

우리나라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김영목)은 11월 25일부터 26까지 양일 간 “KOICA-서울대 국제개발협력 석사학위과정 사후관리 현지 컨퍼런스”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과 함께 자카르타 술탄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우리 측 주인니 한국대사관 김영선 대사,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 김병관 사무소장,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문휘창 원장, 인니 측 인도네시아 산업부 Mr. Harjanto 국장, 국가개발계획부 Mr. Bartary Pandji Indra 국장 및 관련 정부 관계자, 이밖에도 현지 비즈니스 한국기업 관련자와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의 KOICA 석사학위과정 졸업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진행되었다.

행사 첫째 날인 25일에는 인도네시아 기업 및 현지 한국 기업 관계자가 참석하여 개발협력 강화를 위한 민간부문의 참여와 역할에 대한 활동내용을 공유하였고, 각 발표가 끝날 때 마다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여 연수생을 비롯한 전체 참석자가 개발 파트너십의 향후 전망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협력 파트너십을 위한 KOICA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26일에는 ASEAN지역 졸업생들의 연수 사후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그들의 석사 연수 과정의 효과성에 대해 토론하였으며, 국가별 ODA 정책 방향과 CSR 사업의 사례에 대해 논의하였다.

KOICA는 금번 컨퍼런스가 온라인이나 이메일 등으로만 실시되었던 졸업생 사후관리를 오프라인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각국의 연수생들이 연수 과정 이수 후 자국에서의 그들의 업무 수준 향상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CA-서울대 국제개발정책학과 장기석사학위 프로그램은 2008년 8월 개설이후, 현재까지 7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대가 추진될 예정이다. 이러한 후속 행사를 통해 연수생간 또는 연수생과 연수기관간의 유대강화와 현장 적용 방안 모색, 심화된 정보 교류 등에도도함으로써 대상국의 발전과 역량개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네시아 제6회 식목일, 산림바이오매스 시범사업 나무심기 착수

한-인도네시아 산림센터, 인니 영림공사, 녹색사업단 공동 개최



2013년 11월 28일 인도네시아 제6회 식목일을 맞아 한-인도네시아 산림센터, 인도네시아 영림공사, 녹색사업단 현지법인이 공동으로 중부자와 스마랑 물리왕 지역의 산림바이오매스 시범사업지에서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속성수(빨리 자라는 수종)인 글릴리시디아(*gliricidia*) 500그루를 심는 산림바이오매스 나무심기 착수 행사를 개최하였다.

스마랑 산림바이오매스 시범사업은 대한민국 산림청이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바이오에너지인 목재펠릿을 생산 .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500ha 면적에 약 320만그루의 나무를 심고, 앞으로 3년간 서울 남산 면적의 7배인 총 2,000ha에 나무를 심을 예정이다. 주요 식재 수종인 글릴리시디아는 심은 후 약 2년 만에 베어 목재펠릿용으로 공급이 가능하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2012년 1월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도(RPS) 전면 시행에 따라 목재펠릿 수요는 현재 25만톤 규모에서 2017년 발 전용 수요가 늘어 약 110만톤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성현 한-인도네시아 산림센터장은 “오늘 내가 심은 나무 한 그루가 인도네시아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푸른 지구를 만드는 시발점이 되는 큰 뜻을 담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8년 처음 식목일을 제정하여 매년 10억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나무심기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로 삼고 있다.

드림패키지-SK네트웍스 학용품 기증



수 제작에 참여한 드림 주머니에 이면지를 재활용해 만든 에코노트와 다양한 종류의 학용품을 담아, SK가 사업을 전개 중인 인도네시아 외에 말레이시아, 인도에 위치한 장애·고아·빈곤 아동 대상의 학교로 보내는 프로그램이다. 최 지점장은 이번 드림 패키지가 프로그램을 준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단체의 협력과, 디자인 전문가들의 재능기부가 이루어지는 등 자사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구성원 및 단체가 서로 교감하며 함께 만든 활동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21일 코리아센터에서 SK 네트웍스(지점장 최윤석)는 글로벌 사회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의 열악한 학습 환경에 있는 아동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학용품을 지원하는 ‘드림 패키지(Dream Package)’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밀알 학교(땅거랑 교민교회, 자카르타연합교회, 리포찌까랑), 무지개 공부방(땅거랑), 따나매라(끌라빠가당)의 학생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번 ‘드림 패키지’는 한국 본사의 구성원들이 손

또한 학용품을 통관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며, 인도네시아의 지역사회를 위하여 이번 자원봉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기엽 한인회장은 “드림 패키지 프로그램을 진화시켜 불우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바라며 교민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CBMC 교회친선 탁구대회 동부교회 종합우승 차지

지난5일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CBMC 교회친선 탁구대회가 성대히 개막했다. 이날 열린 제3회 CBMC 교회친선 탁구대회에서 자카르타동부교회(담임목사 최진기)가 종합우승해 파란을 일으켰다. 동부교회팀은 남녀단식, 복식, 혼합복식에 출전해 3연승을 눈앞에 둔 연합교회 팀을 2:1로 물리치고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갈수록 대회 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CBMC 탁구대회에서 1부팀 경기에 동부교회가 우승하고, 준우승에는 연합교회 A팀, 3위에는 교민교회 A팀이 차지했으며, 2부팀 경기에는 한마음교회, 준우승에는 열린교회 B팀, 3위에는 참빛교회가 차지했다. 12개 교회 16개 팀 500여명의 선수와 성도가 참여한 제3회 CBMC 교회친선 탁구대회는 인도네시아 한인기독실업인회(이하 CBMC 회장 이수일 대표)가 주최하고, 한인목회자협의회와 재인도네

시아 대한체육회가 후원하였다. 인도네시아 한인 CBMC는 땅그랑지회를 시작으로 자카르타, 끌라빠가당, 보고르 지회에 12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유 무자재, 서예전 성황리에 개막

有無自在, 있고 없음이 스스로에게 달렸나니! 전이 열렸습니다.

<2013, 사단법인 한국서협 인니지회전>과 인도네시아 교민들의 서예동호회 <자필묵연>의 제9회 정기전이 14일 한국문화원에서 개막을 했습니다. 김영선대사, 신기엽 한인회장, 원연춘 중국계 인도네시아인 서예가 등 250여 관객이 성황을 이룬 이 전시는 오는 18일까지 한국문화원에서 열립니다. 35명의 회원이 100여점의 작품을 출품한 이번 전시는 그 제목에서 ‘자기의 존재가치란 스스로 가꾸는 것’이라는 의미도 추출해낼 수 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이 가을을 깊이 음미하게 하기도 합니다.

자필묵연 제경중회장은 인사말에서 “아홉 번의 전시에 다다랐음에도 여전히 내어 놓기가 부끄럽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스스로를 갈고 닦은 시간들을 작품으로 결정지을 수 있기에, 전시는 늘 또 다른 즐거움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인도네시아 김영선 대사는 축사에서 “유현한 검은 먹이 부드러운 모필을 통해 하얀 화선지와 어우러지는 것이 현대인의 심상을 자아내기에 매우 적절한 장르”라고 말하고, “가정과 일터에서 힘쓰는 가운데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붓과 먹으로 수련하신 출품회원 모든 분들의 노력에 존경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자필묵연 지도선생인 인제 손인식

작가의 병풍 작품도 전시되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보기 드문 이 작품은 전면 8폭을 멋드러진 시조로, 뒷면 6폭을 간결하면서도 품격있는 문인화로 장식했습니다. 또 한편 자필묵연은 그동안 닦은 실력을 바탕으로 열 번째의 전시를 서울 인사동으로 계획하고 전시장을 예약하는 등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타국에서 바쁜 비즈니스 활동 중에 갈고 닦은 솜씨를 고국의 가족과 친지, 벗들에게 선보이려는 큰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의 문화적인 측면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어서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전시에 출품한 작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송계 강주석, 이경 김선영, 자은 김영덕, 운초 김영주, 무불 김유만, 다연 김정임, 이담 김행일, 취은 김효경, 경재 문응국, 아정 박순금, 연곡 박재한, 취현 박재환, 지운 박혜경, 혜산 송판원, 보덕 신동필, 세정 심순희, 우빈 양승식, 일무 유용석, 시후 윤계옥, 목야 이란재, 부연 이선우, 금사 이영옥, 문정 이우규, 유선 이정화, 목정 이채성, 우현 임채실, 목정 장 임, 도념 제경중, 다은 조영희, 현동 진만휘, 무여 천상운, 이소 하연경, 다인 한혜정, 여송 홍성민, 인제 손인식(지도선생)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하노이대회

11월 27일부터 30일 까지,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회장 승은호) 하노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아총련)는 2007.12월 8일 태국에서 ‘아시아는 하나다’ 라는 슬로건 아래 아시아 한인회 발전을 위한 유대강화, 교류와 소통을 통해 네트워크 구성, 이를 통한 주재국 내에서의 교민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금번 하노이 임시총회로 제 8회 대회를 치르게 되었다.

회장은 인도네시아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난 KORINDO 그룹의 승은호회장이 맡기인 대회부터 회장을 맡아오고 있으며, 회원은 총 19개국의 전.현직 한인회장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번 하노이대회는 2013 태국 방콕 정기총회 대회에 이려 개최된 임시총회였으나, 정기총회 못지않게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아총련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될 것이다.

9개국에서 40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에는 중국 상해 한인상회 전.현직 회장님이 참가하여 더 뜻 깊은 대회가 되었다.

하노이에 도착하여, 7시부터 시작되는 승은호 회장의 주최 만찬에 전대주 대사를 비롯한 하노이 귀빈들께서 속속 도착하여 70여명이 참석하였다. 김교호 하노이 한인회 사무국장의 멘트로 시작하

여, 승은호 회장의 환영사가 있었고, 이어서 재베트남대한민국 전대주 대사의 축사가 있었다. 전대주 대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민간 기업인으로서 대사에 임명된 첫 번째 경우이다. 승회장의 환영사와 전대주대사의 축사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것이, 이런 조직이 아시아 한인회를 발전시키며 더 나아가 조국의 번영을 위하는 기초가 됨을 언급 하고 역할과 임무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셨다.

그리고 아총련에서 지급하는 하노이 한글학교와 한국학교에 대한 장학금 2,000불 전달식도 함께 했다.

본 대회를 마무리하면서,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행사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 하여 아주 성공적이었다는 총평이 있었고, 또 본 대회를 통해 더욱 교류하고 소통하는 아총련이 될 것임에 확신한다.

본 대회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후원 및 지원을 해주신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을 비롯, 하노이한인회장 구분수, 재베트남통합한인회장 이충근, 참빛그룹 이대봉 회장, 승은호아총련회장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

(하노이 한인회)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재인도네시아 선수단 해단식

지난 10월 본국에서 열린 ‘제94회 전국체육대회’에 17개국 참가 국가 중 전체 6위의 성적을 거둔 재인도네시아 대한 체육회(회장 양영연)가 선수단 해단식을 가졌다.

12월 2일,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린 이 해단식에는 선수단은 물론 대사관(대사 김영선), 한인회(회장 신기엽), 코참(회장 송창근) 등의 한인사회 각계 인사들과 선수단, 한인동포들이 참석하여 재인니체육회의 올해 성과를 축하해주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다른 각오와 뛰어난 경기력으로 최선을 다한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선수단은 총 7종목(축구, 테니스, 볼링, 골프, 탁구, 스쿼시, 태권도)에 출전하여 은 4개, 동 8개의 성과를 거두었다.

김영선 대사를 대신하여 환영사를 한 박영식 공사는 “한*인니 양국 발전에는 무엇보다도 동포들의 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한인사회가 계속해서 단합하여 성과를 이뤄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기엽 한인회 회장은 축사를 통하여 “경기를 즐기고 오라고 부탁드렸더니 금메달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린 것 같다”며 “내년에는 더욱 더 좋은 성적을 내기를 바라며 지금 이 자리를 마음껏 즐기자”고 말했다.

양영연 체육회 회장은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며 “이 자리야말로 다시 출발하는 새로운 자리다. 내년 제주도에서 열리는 대회를 위해 힘찬 전진을 하자”고 선수단에게 당부했다.

2부에서는 태진아와 마야의 공연이 이어졌다. 태진아는 노래 중간 중간에 체육회 임원들과의 에피소드를 이야기 하며 분위기를 이끌었고, 마야의 가창력 있는 노래와 카리스마 있는 무대 매너 등으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2013 신문사랑 전국 NIE 공모전

JIKS 재학생 2명 수상

JIKS

대한민국의 한국신문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전국 초·중·고 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2013 신문사랑 전국 NIE(신문활용교육) 공모전’에서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이하 JIKS, 교장 김승익) 재학생 2명이 다음과 같이 수상하였다.

공모 부문	공모 내용	수상자	시상 내역
NIE 패스포트	신문 지면에서 ‘스포츠’ 주제에 적합한 정보를 찾아 과제를 수행하는 NIE 워크북	박주영 (11학년)	우수상 (상금 30만원)
함께 신문 읽기	관심 있는 기사를 골라 가족, 선생님, 친구 등과 함께 읽고 의견을 나눈 후 감상문 작성	조은빈 (6학년)	장려상 (상금 10만원)

수상자명단은 2013년 9월 26일자 매일경제 등 대한민국의 주요 일간지를 통해 발표되었는데, 해외 한국학교에서는 JIKS가 유일하게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시상식과 우수 작품 전시회는 2013년 10월 10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3 대한민국 NIE 대회’에서 진행되었으며, JIKS에서는 2013년 11월 8일 나래홀에서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JIKS, 샤프론과 함께하는 수까부미 봉사 전개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김승익)는 2013년 11월 2일부터 4일까지 학부모샤프론봉사단과 10학년 학생 39명과 함께 가나안농군학교와 연계하여 수까부미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펼쳤다. 5시간이 걸려 도착한 가나안농군학교에서 나눔과 봉사, 개척 정신을 교육받은 후 현지 사람들이 사는 산촌마을을 경유해서 Karanghau 바닷가로 이동했다. “떠약벌이 쏟아지는 1Km 정도 거리를 걸으면서 해변의 쓰레기를 모두 수거했더니 인도양을 앞에 둔 바다가 훨씬 깨끗하고 시원해 보였다.” 고 한결같이 JIKS 학생들이 입을 모았다. 주변에서는 함께 여행을 온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꼬레아’를 외치면서 엄지손가락을 추켜세우기도 했다. 다음날 오전, 오후에는 SD Nelayan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준비해 간 페인트와 니스로 학교 담장 및 교실 벽면, 그리고 책걸상 등을 예쁘게 도색했다. 200여 개나 되는 책걸상을 운동장에 모아보니 엄청난 양이었다. 어느 누구 하나 게으름피우지 않고 모두가 땀을 흘리면서 봉사의 의미를 실컷했다.



마지막 날은 SD Nelayan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여섯 팀의 학생들이 샤프론봉사단과 함께 한국어 및 동요, K-POP, 민속놀이, 배드민턴, 줄넘기 등을 신나게 즐겼다. 작별의 시간이 다가오자 SD Nelayan 초등학교 학생들은 눈물과 함께 “다시 만나요” 라고 아쉬움과 그리움을 표현했다. 김민근(10학년) 학생의 소감문에는 “수까부미 봉사활동을 통해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으며, 남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어른스러운 글을 남겼다.

J I S



(학생기자 권기남)

이 번 11월에 자카르타국제학교(JIS)에서는 해마다 개최하는 UN Day 행사 준비가 한창이다. United Nations Day (UN Day)란 유엔 총회의 업적과 목표를 홍보하고 기리기 위해 UN에서 지정한 날로 공식 지정일은 10월 24일이다. 올해 JIS의 UN Day는 11월 29일이다.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JIS에서는 한국인의 대표 클럽인 Korean Club을 비롯하여 일본, 라틴아메리카, 인도, 인도네시아 등의 클럽이 매년 참가하는 공연을 한다.

올해 Korean Club은 한국 전통의 탈춤과 사물놀이를 공연할 예정이다. 이 공연은 임원 박은비(회장), 이주희(부회장), 김어진(총무) 과 박재연(서기)이 초청 교사 정방울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10월 21 부터 기획하여 준비하고있다. 참가자는 9학년 19명 10학년 5명, 그리고 11학년 15명이며 각 학생들은 성공적인 무대 공연을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연습에 임하고 있다.

공연은 총 4분으로 초반부는 사물놀이로, 후반부는 탈춤으로 구성된다. 사물놀이는 총 9명의 학생이 참여하며 학생들은 장구, 썩과리, 징, 북 등을 연주한다. 탈춤은 우선 학생들이 각자 지정된 자리에서 통일된 움직임으로 춤사위를 펼친 후 절정과 결말 부분에서는 다같이 무대 중앙에 모여 공연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탈춤을 추는 공연자들은 손수 제작한 탈을 쓰고 양손에는 색동을 두른 한삼을 끼고 우리 가락에 맞추어 힘차고 절도있는 춤사위를 펼치기 위해 땀 흘리며 연습 중이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며 코리아 클럽의 회장 박은비

는 “바쁜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틈틈이 시간을 투자하며 열심히 연습에 임해주는 회원들이 고맙다” 고 전했으며 “이번 공연을 통해 신선한 한국의 새로운 모습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땀을 흘려 연습하며 협동심을 통해 탈춤과 사물놀이를 조는 단합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학생들의 노력이 UN Day 공연날에 빛을 발하여 한국인들의 위상을 높여 줄 수 있을 것이다.

JIS에서의 UN Day는 다양한 문화의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이 날 학생들은 자신의 국적을 상징하는 의상을 입고 부모님들이 준비한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맛보며 서로의 전통과 풍습을 공유한다. 이러한 날을 통해 학생들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게 될 것이다.





Indonesian Heritage Society
Korean Section



토요문화학교 체험 보고서

(JKKS 손명준)

11월 30일 토요일, 나는 화창한 햇살 속에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학교로 향했다. 너무 기대를 한 탓인지 한 시간 먼저 도착한 나는 운동을 하며 놀다가, 여러 가지 궁금하고 설레는 마음을 안고 초등 건물로 들어섰다. 그곳에는 토요문화학교 전담 선생님이신 윤난희 선생님과 여러 헤리티지 선생님들이 계셨다.

내가 알기론 오늘 마지막 토요문화학교 수업에서는 바떡을 만들어본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도착할 때까지 흥분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에 온지 어언 이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바떡을 한 번도 입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도착하고 헤리티지 선생님이 하시는 말에 약간 실망하기도 했다. 왜냐하면 오늘 만드는 바떡은 내가 생각했던 웃웃이 아니라 현수막같은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떡을 만드는 과정은 그대로 한다고 해서 마음이 풀렸다.

한창 바떡을 재미있게 만들고 나서, 마지막 수업을 끝내고, 나는 돌아오는 길에 생각을 해 보았다. 1

학기 초에, 그냥 엄마가 재미있을 거라고 해 보자고 한 이 토요문화학교를 무엇을 하는 지도, 누구랑 하는 지도 모른 채 시작하였고, 이 토요문화학교가 나중에는 재미있어서 언제 하는지 날짜를 세어 가며 기다리게 되었다.

왜 이렇게 재미있었냐고 묻는다면, 나는 망설이지 않고 수업의 다양성이라고 할 것이다. 나는 호기심이 많은 편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데, 이 ‘토요문화학교’라는 콘텐츠는 나에게 여러 가지 알 것을 제공해 주었다. 첫번째 수업에서는 인니 문화 강연과 JKKS 졸업생이자 KAIST 학생의 강연으로 토요문화학교의 추진 방향과 앞으로의 공부 방향성을 제시하여 주었다. 두번째 수업에서부터는 본격적인 여러 가지 인니 문화의 체험으로서 도자기 박물관에도 가보고, 바떡을 만들어보기도 하였다. 또한, 친환경 페브리즈와 비누도 만들어보았다.

이런 토요문화학교 수업들은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윤난희 선생님과 여러 헤리티지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2013 화이트 콘서트

자카르타 극동방송(대표:신정일목사) 문화사역팀의 연말 성탄 연주회, ‘2013 화이트 콘서트 : 따뜻한 겨울음악회’가 지난 12월 1일(주일) 저녁 7시에 꾸닝안에 위치한 우스마르 이스마일 홀(Usmar Ismail Hall)에서 열렸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화이트 콘서트에서는 자카르타 극동방송 합창단을 비롯하여 청소년 오케스트라, 어린이 합창단 등 100여명의 문화사역팀 단원들이 총 출연하여 합창곡과 성탄찬양, 클래식 소품 등 다양한 곡들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다. 또한 스마랑에 위치한 압디엘 신학교 교회음악과 합창단원 50여명이 찬조로 출연하여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특별히 이번 콘서트는 인도네시아 사랑의 전화 운동본부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연주회로 진행되어 더욱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행사를 모두 마친 후에는 재인니한인회 신기엽 회장이 나와 축사를 하셨으며, 이어 사랑의 전화 정선대표에게 불우아동을 위한 운동화140켤레와 한,인도네시아수교기념 T-셔츠 280장을 전달했

다. 인도네시아 사랑의 전화 운동본부 봉사자들과 이번 행사를 주관한 자카르타 극동방송 대표 신정일 목사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어 신정일 목사가 인도네시아 사랑의 전화 운동본부 측에 행사 수익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카르타 극동방송은 지난 2007년 시작되어 매일 저녁 7시부터 한 시간 동안 FM104.2MHz를 통해 한국어 복음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사역을 통해 자카르타 한인사회에 선한 문화를 전하는 일을 위해 애쓰고 있다.





탈 (TAL)

29일,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40주년을 기념해 태권도를 문화 공연으로 승화시킨 년버벌(비언어) 퍼포먼스 ‘탈(TAL)’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밤을 뜨겁게 달궜다.

자카르타 코타 카사블랑카 호텔에서 열린 ‘탈’ 공연은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대사 김영선)과 한국문화원(원장 김석기),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 김태환)가 주최하였다. 김영선 한국대사와 양국 관계자, 자카르타 한인 동포, 인도네시아 시민 등 3천여 명이 참석해 태권도 및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김영선대사는 인사말에서 “한국의 전통과 현대의 공연예술을 한자리에서 맛보는 강렬하고 역동적인 종합 퍼포먼스로 그동안 수교40주년의 다양한 장르를 결집하는 피날레 공연이 될 것이다”라고 공연의 문을 열었다.

태권도와 한국무용 그리고 타악과 아리랑, 비보이의 조화로운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 태권도 퍼포먼스 탈(TAL)은 인간의 본성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정신적 수행을 담아 대중적인 공연으

로 제작되었다.

이번 공연은 힘으로 상대를 지배하려는 무리와 평화를 지키려는 무리가 서로 대립하며, 증오와 사랑 이야기를 전개하였다. 국가대표 시범단의 절도 있는 태권도 품새와 역동적인 격파, 물과 불을 이용한 타악 퍼포먼스 등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며 감동의 무대가 이어졌다.

화려한 조명과 음악, 그 속에 절도와 속도의 완급이 조화를 이루는 연합동작으로 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으며, 눈을 가리고 보이지 않는 표적을 정확하게 격파하는 모습에 관중들은 탄성을 쏟아냈다.

한 관람객은 “드림에서 물을 튀기며 연주 하는 모습과 웅장하게 코리와와 인도네시아를 외쳤을 땐 나도 모르게 울컥했어요”라며 “이 때까지 보지 못한 태권도 퍼포먼스였다”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공연이 끝나자 관중들이 일제히 기립박수로 환호하며, 출연자들이 무대 인사에 나서자 수백 명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함께 기념촬영을 하며 즐거워했다.





이희아 콘서트 이야기

글: 채인숙(다큐멘터리 방송작가)

우리는 행운을 가졌다

2013년 11월 30일. 자카르타 한국 국제학교 나래홀에서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이희아 콘서트’가 열렸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 한국 국제학교에서 특수 교육을 받는 민들레 반 친구들과 엄마들이 이희아를 만나기 위해 먼저 공연장을 찾았다. 마술을 곁들인 첫 인사를 나누고, 무엇이든 질문을 하는 시간을 주었는데 아무도 선뜻 손을 들지 않는다. 그때 한 아이가 조그만 목소리로 이희아에게 물었다. “왜, 피아노를 쳤어요?” 희아는 손가락에 아무 느낌을 가질 수가 없어서, 피아노를 치면 손가락의 감각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다시 그 아이에게 물었다. “너도 피아노 좋아해?” 아이가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자 희아가 환히 웃으면서 말했다.

“바구스 (Bagus) !!”

엄마들의 질문은 한결같다. 어떻게 장애를 가진 딸을 저렇게 훌륭한 피아니스트로 길러냈냐는 것이다. 그리고 힘들지 않았냐고,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묻는다. 희아의 엄마는 예의 흔들림없는 목소리와 눈빛으로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장애아의 엄마는 정말로 행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다. 우리 아이들은 변하지 않는 마음과 사랑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린 늘 행복할 수 있다. 하느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장애아를 좀 더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믿는다. 그리고 하느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집안을 선택해서 장애아를 보내신다. 그러니 우리는 남들보다

큰 행운을 가졌다.”

‘우리들 몸 속에 스스로를 구원하는 선율이 숨어 있다’고, 한.인니 문화연구원의 사공 경 원장은 이 날 이희아를 위한 시를 낭독했다. 그리고 쇼팽의 즉흥 환상곡에 맞춘 김은지 현대무용가의 아름다운 무대와 깔끔하고 정갈한 성격미 극동방송 아나운서의 사회, 방송실에서 수고해 준 헤리티지의 김주현 씨까지, 모두가 이 날의 콘서트가 반짝이며 빛나도록 힘껏 애를 써 주셨다. 무엇보다 이런 아름다운 공연을 기획하고 후원한 일요신문과 삼성 인도네시아 법인에도 감사할 일이다. 그 모든 분들의 수고때문에 자카르타 교민들의 영혼이 감동과 사랑으로 한층 키를 키웠을 것이다. 공연은 엄마가 그토록 뜬어말린 노래를, 이희아와 모든 관객들이 세 곡이나 함께 부르며 끝이 났다. 모두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운 풍요로운 저녁이었다. 그대의 ‘역할’을 사는 것에 대하여.. 중

▼이번 행사를 주최한 구자성 일요신문 사장은 콘서트 수익금 71,250,000 루피아 전액을, 삼성전자는 5000 불을 JIKS 장학금으로 쾌척하였다.





사랑 스못 (Sarang semut)

상생(相生)의 묘약

일반명: Sarang semut (인니)

과 명: 꼭두서니과 (Family: Rubiaceae)

학 명: *Myrmecodya pendens* Merr. & L.M. Perry

기원지: 인도네시아 파푸아 지역으로 추정

분 포: 인도네시아 (파푸아), 말레이반도 인접국가, 호주,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이 용: 약용 및 건강보조 식품

모양새: 줄기 밑부분이 부풀어 오른 벌통모양, 표면은 울퉁불퉁하고 가시가 많다. 나무에 붙어살며 몸통의 끝에서 잎이 나온다. 자른 단면은 벌집과 유사하고 많은 공간이 있다.

백진협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인니생물소재연구센터장)

요즘 소위 뜨고 있는(?) 약용식물이 있습니다. 최근에 파푸아 지역에서 부아메라와 더불어 유명세를 탄 식물인데 파푸아나 깔리만탄 등지로 여행이나 출장을 웬만큼 다녀보신 분들은 감빵(시글)과 시장에서 접해보셨을 약용식물입니다. 벌집을 절편으로 만들어 말린 것처럼 생겼는데 각종 암과 여러 가지 질환에 효과가 있다 하여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어로 ‘Sarang semut (사랑스못, nest of ant)’ 이라 하며 개미알집 혹은 개미집 나무라는 뜻입니다.

생김새

사랑스못이라 불리는 이 식물은 꼭두서니과에 속하는 작은 나무로 개미와 공생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착생식물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착생식물

이란 기생식물처럼 숙주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이끼나 고사리, 난초처럼 다른 나무에 함께 붙어사는 식물을 말합니다. 사랑스못 줄기의 아랫부분은 마치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벌통 모양입니다. 표면은 울퉁불퉁하거나 때론 많은 가시가 있습니다. 크기와 모양은 숙주와 공생하는 개미의 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내부에는 스펀지나 거품같은 많은 빈공간들이 있는데 이 안에서 특정 종류의 개미들이 알을 낳고 서식처로서 살아갑니다.

전통적 이용

실제로 개미와 공생관계를 이루는 개미집나무는 전 세계에 약 70여 종이나 됩니다. 말레이반도 주변의 동남아시아 국가와 인도네시아, 호주 일부

지역과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에 주로 분포합니다. 많은 종이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데 비하여 전통적인 이용에 관한 기록은 매우 드문 편이며 의학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종은 소수입니다.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 *Hypnophytum formicarum*나 *Myrmecodia tuberosa*를 물에 끓여 음용하거나 파우더 형태로 만들어 종기나 두통, 류머티즘, 간질환과 소화불량, 암 등의 치유에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최근에(2006) 파푸아 지역의 사랑스몫 *Myrmecodia pendens* 이 전통적으로 종기, 치질, 코의 출혈, 요통, 통풍, 알레르기, 심장질환, TBC(결핵), 종양, 암 등의 치료에 효험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사랑스몫 전체가 새롭게 각광받게 되었습니다.

성분 및 효능

과학적인 화학분석으로 사랑스몫의 주요 활성 성분들이 밝혀졌는데 대표적인 것이 플라보노이드(flavonoids)와 타닌(Tanin), 토코페롤(Tocopherol) 그리고 각종 미네랄입니다. 플라보노이드는 자연에 존재하는 천연색소의 일종으로 항균·항암·항바이러스·항알레르기 및 항염증 활성을 지니며, 독성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체 내 산화작용을 억제하고 암을 예방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타닌은 식물체 내에서 미생물, 곤충, 포유동물 등에 대한 방어기능을 가지며 인체에서는 지사작용과 지혈작용을 합니다. 토코페롤은 항(抗)산화제로서 세포 내에서 산화되기 쉬운 물질, 특히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불포화지방산의 산화를 억제함으로써 세포막의 손상과 나아가서 조직의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밖에도 인체에

유익한 역할을 하는 칼슘, 철, 황, 칼륨, 아연, 마그네슘 등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랑스몫의 안정성을 논하는 것은 아직 이롭



니다. 실험실 수준의 연구결과들조차 아직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성분분석에 대한 연구나 항박테리아, 항염증, 항암 효과에 대한 세포 수준의 연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한 예로 베트남 국립대학의 Qui Kim Tran 박사와 일본의 연구진에 의해 사랑스몫의 추출물이 자궁경부암, 폐암, 대장암 세포의 증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연의 상생이 준 선물

사랑스몫과 개미의 공생관계는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사랑스몫은 개미군집을 외부 적들에게서 보호하는 난공불락의 서식처만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기온변화에 따라 내부 온도를 조절함으로써 개미알이 부화하고 번식하는데 최적의 조건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포도당을 분비하여 개미를 유인하고 먹이를 제공합니다. 어미 개미들은 침샘에서 면역증강물질을 계속해서 분비하는데 이는 번식 중인 개미알과 개미 군집을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면역증강물질은 개미 몸 안에 살고 있는 미생물과 개미와 숙주식물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되며 최종적으로 숙주식물인 개미집에 전달 흡수됩니다. 사랑스몫은 개미에게 따뜻한 보금자리와 혜택을 주고 개미로부터 자신의 생존에 필수적인 각종 면역물질이라는 보상을 받습니다. 결국, 인간이 의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랑스몫의 활성물질은 숙주식물과 개미와 미생물이 외부의 변화에 대응하며 상생의 결과로 만들어낸 최종산물인 것입니다.





생물자원 쏘방 공장



바이오 퍼수루안 공장



CJ인도네시아 손용 대표

창립 60주년 맞은 CJ그룹,

장서고 있으며, CJ대한통운은 물류센터를 통한 현지 배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CJ E&M 방송사업부문은 한국의 다양한 드라마, 예능, 음악 프로그램들을 인도네시아에 방송하며, CJ E&M 게임사업부문의 ‘넷마블’도 다양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CJ의 사업군은 매우 다양한것 같은데요?

CJ그룹이 새롭게 정한 글로벌 사업 전략 키워드는 “문화”입니다. CJ의 사업 강점을 활용하여 세계의 라이프스타일을 주도하는 한류의 중심이 되겠다는 것인데요, 한식 브랜드 비비고로 한식 문화 세계화에 속도를 내고 있고 K팝과 영화 산업을 중심으로 한류 콘텐츠 전파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CJ그룹은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기존 사업외에 음식 및 문화 콘텐츠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CJ는 인도네시아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진정한 상생 파트너가 될 것이며, 이는 CJ그룹이 최근 선포한 CSV 경영의 정신과도 부합합니다.

CJ그룹에 대해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953년 대한민국 최초의 설탕 제조업체로 한국인의 식문화에 새 바람을 일으키며 출범한 CJ는 생활 속의 건강, 편리, 즐거움을 추구하는 글로벌 생활문화기업입니다. 저희 CJ는 최초, 최고, 차별화를 추구하는 ONLYONE 이라는 경영철학 아래 식품&식품서비스, 생명공학, 엔터테인먼트&미디어, 신유통 등 4대 핵심 사업군을 주축으로, 전세계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인들이 한국의 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을 즐기고, 한국이 최고의 Cross-Cultural Brand로 자리매김하는 것. 이것이 CJ의 꿈이자 비전입니다.

CJ그룹의 인도네시아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가장 먼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CJ제일제당의 바이오 부문은 사료 첨가물과 식품 첨가물을 생산하고 있고, CJ제일제당의 생물자원 부문은 인도네시아 사료 시장 점유율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CJ제일제당의 식품 부문은 프리믹스, 양념장 등 신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CJ푸드빌은 현재 총 13개의 푸레쥬르 매장을 운영하며 비비고 레스토랑을 통해 한식 세계화에 앞

CSV 경영의 의미가 많이 궁금합니다.

저희 CJ는 여러 활동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을 위한 무료 의료 서비스, 헌혈, 식료품 공급, 방역 소독 활동과 종교적으로 특별한 날/행사 때에는 필요한 음식과 기를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나누는 ‘식품 나눔’ 활동으로 저소득 주민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남자 아이들을 위한 무료 할레식, 깨끗한 물 무료 공급 및 강을 깨끗이 하는 프로그램등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장학금 프로그램, 어



▲뚜레쥬르



비비고▶

CSV(공유가치창출) 기업으로 거듭난다

린이 축구 교실, 한국어 말하기 대회와 같은 교육 및 문화 행사에 활발하게 지원해 지역민과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CJ그룹은 창립 60주년을 맞아 공유가치창출 경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공유가치창출(CSV)경영이란 기부와 봉사활동 중심의 사회공헌활동에서 한걸음 나아간 개념으로, 기업 활동 관련 구성원 및 사회적 취약계층과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사업보국을 실천한다는 뜻이고 CSV경영의 방향은 기존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발하게 전개해 온 CJ의 CSR 활동이 CSV경영으로 진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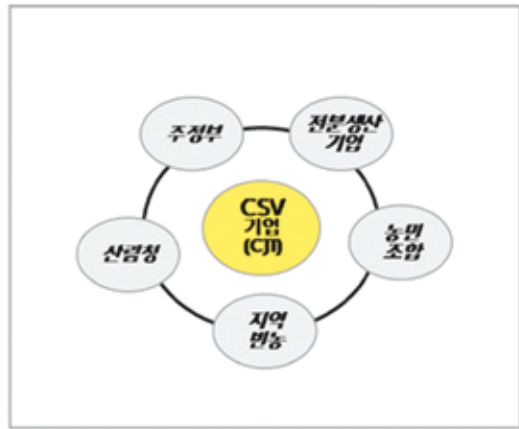
CSV경영 활동 사례로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2013년 주요 활동으로 바이오 부문은 인니 동부자바 주정부와 타피오카 전분 투자 협력사업을 실시해 당사의 경쟁력있는 로컬 전분 확보와 주정부의 생산 안정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았고, 푸드빌은 KOICA와 함께 인니 실업계 고등학교에 CJ 제빵학과를 설립해 선진 제빵기술 이전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CGV에서는 한국 인도네시아 수교 40주년을 기념해 한국영화제와 인니영화제 개최를 후원했고, 자카르타 현지 청소년 40여명을 대상으로 제 1회 ‘인도네시아 토토의 작업실(미래 영화인을 꿈꾸는 청소년들의 영화제작 과정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 한국 문화와 영화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했습니다. 참고로 다가오는 12월 17~19일에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인도네시아 자카르

동부자바 주정부와 타피오카 공급 전략적 제휴

“지역클러스터구축形”



- 안정적 로컬 원료선 확보
- 구매액 기준 2천만\$ 수준 예상
- 지역정부와 협력모델 구축을 통한 기여
- 고용창출(5천Ha 규모의 농민) 등



토토의 작업실 (인니 청소년 문화지원 프로그램)



2013 인도네시아 영화제 후원

타 지역 문화소의 아동 100명을 위한 글로벌 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CJ의 비전에 바탕이 된 경영철학을 함축한 온리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온리원은 최초, 최고, 차별화를 추구해 핵심 역량을 갖춘 1등이 되는 뜻이며, CJ는 제일 좋은 제품과 제일 높은 서비스 곧 온리원을 제공해 고객과 주주, 임직원에게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희 CJ인도네시아는 한인 동포뿐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한국의 대표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인 기업탐방코너가 계속됩니다.

드라마에서 배우는 BAHASA



허영순/OKTN (KBS WORLD)

지성이면 감천 Tulus hati

Diam, Jangan coba- coba menceramahiku.

Diam은 분위기 등이 조용할 때 또는 상대방에게 조용히 하라고 종용할 때, 쉿! 이라는 표현으로 Diam 또는 거친 표현으로 Tutup mulutmu (입 닥쳐/ 입 다물어) 를 사용합니다.

* Diam 은 이외에도 ,동작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에 은둔한, 거주하는 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 또 Diam- diam 반복어로 사용하면 아무도 모르게~을 행동하다 의 뜻을 같습니다.

Dia pulang ke rumah sebelum selesai rapat secara(dengan) diam-diam: 회의가 끝나기 전 에 아무도 모르게 (슬쩍) 귀가했다.

문장에 따라 다른 뜻으로 사용됩니다.

Contoh(예) :

Diam [tidak bersuara소리없는 , tidak bergerak 움직이지 않는, berhenti berbunyi 소리를 멈춘membiarkan (관심없이) 놔두는 ,tinggal 사는 거주하는, 자리하는 (bertumah, bertempat tinggal)등의 뜻으로 사용된다.]

- Semua murid diam saat guru itu marah.

선생님이 화를 내니 학생들이 조용했다.

- Aku duduk terdiam setelah mendengar kabar duka cita itu.

부고 소식을 듣고 말문이 막힌 채 앉아 있었다.

- Diamkan adonan selama sejam hingga mengembang.

반죽이 부풀 때 까지 1시간 동안 놔두세요.

살면서 적반하장(積反荷杖)의 경우를 당해 본 적이 있나요.
 지성이면 감천(知性이면 감천)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예린은 정말 안하무인(安下無人) 일 때가 많은데요
 자신만이 최고(最)이라고 생각하며 항상 세영(세영)이를 업신여깁니다.
 예린을 보호해주려는 세영의 충고에 “조용히 해! 나를 가르치려고(충고) 하지마!”
 하고 독한 말을 내뱉으며 공격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저지하거나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할 때
 조용히 해, 씯 또는 입다물어 거칠게 표현하면 닥쳐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Almarhum ayahku selalu berdiam di dalam hidupku.

돌아가신 아버지는 항상 내 생활 속에 (함께) 계신다 (함께 살고 있다)

-Setelah dengar penjelasan yang benar semua diam saja.

올바른 해명을 들은 후 모두 잠잠히 있었다(비평하는 사람이 없었다/tidak ada yang kritik)

Ceramah [pengetahuan 지식, wawasan, pidato연설, nasihat충고, suka bercakap-cakap이야기하기를 좋아하다, cerewet 잔소리 등의 뜻으로 사용된다.]

- Ayah sedang menyusun kata-kata

untuk ceramah yang akan dia sampaikan saat shalat(Solat) Jumat besok.

아버지는 돌아오는 금요일 예배 메시지 전달(연설)을 위해 준비 중입니다.

- Aku tak bermaksud menceramahimu, karena itu kenyataan.

사실이기 때문에 (너에게) 충고할 생각이 없다.

- Dia selalu mengantuk saat dengar orang lain berceramah.

다른 사람이 이야기 할 때 그는 항상 졸다.

-Ibuku suka menceramahiku dan adikku jika berbuat salah sedikitpun.

어머니는 나와 동생이 조금이라도 잘못을 하면 잔소리 하길 좋아하십니다.



여유로운 노후를 위한 특급 조언

“노후의 5대 적 창업.사기.건강.부부.자식 조심하라”



수명은 길어지는데 퇴직은 빨라진다. 인생 1막은 부모의 도움과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었다면
인생 2막은 노후 준비가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은퇴설계 전문가 김진영 삼성증권 은퇴설계연구소장이 들려주는 행복한 노후 준비법.

김 소장은 “건강 크레바스에 대비할 때는 의료비 증가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온 가족이 함께하는 것이 가족 간의 공감대 형성과 책임의식을 갖는 데 도움이 된다” 고 조언했다.

그는 자식 크레바스는 특히 은퇴를 앞둔 50대뿐 아니라 30~40대도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교육비 부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실제 취업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국내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 졸업자 취업률이 2012년에는 59%에 불과해요. 졸업생의 절반 정도만 취업을 한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대학을 나오고서도 부모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썩어묵으로 전락합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성인이 된 미혼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50대 가구는 31.7%에 달한다. 60대까지 합쳐도 28.6%다. 문제는 다 큰 뒤 독립하지 못한 자녀의 상당수가 생활비를 대지 못한다는 점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부모는 함께 사는 성인 자녀 한 명당 월평균 90만원의 생활비를 지출하고 있다. 이들이 독립한다고 해도 문제다. 2012년 기준으로 아들 한 명 결혼시키는 데 부모는 평균 4천6백31만원, 딸 한 명에 3천58만원이 들었다.

김 소장은 “은퇴자산 2억5천만원을 지닌 55세

퇴직자가 60세까지 자녀 부양비로 연간 5백만원을 쓰고, 결혼 자금을 평균 수준으로 지원하면 77세쯤 은퇴 자금이 바닥난다”면서 “분수에 맞지 않게 사교육과 결혼을 시키고 사업 밀친을 대주느라 부모는 부모대로 노후가 망가지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독립심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부모가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지 못하면 결국 자녀들이 불행해진다는 생각으로 지금부터 불필요한 사교육을 끊고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은 물론 평소 용돈 관리 등을 통해 경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아직 본격적으로 사교육 시장에 뛰어들지 않은 30대는 부부가 힘을 합쳐 자식 크레바스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부부가 함께 자녀 뒷바라지를 어디까지 어느만큼 할지 충분히 대화해서 ‘적당한 지원’의 선을 찾아야 합니다. 또 자녀가 대화가 통할 나이라면 온 가족이 함께 대화하면서 지원은 대학까지, 또는 어학연수까지 등으로 한계선을 정해야 자녀에게는 자립심을, 부부에게는 자식 크레바스로 발생할 수 있는 황혼 이혼이라는 또 하나의 위험 요소를 막을 수 있어요.”

또 부부 크레바스는 은퇴를 전후해서 새로운 배우

자와 산다는 기본으로 모든 것을 바꿔야 하며, 평소 부부간에 많은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수라는 게 김 소장의 조언이다. 부부가 함께 자산을 리모델링하라

은퇴 크레바스에 빠지지 않으려면 경제 활동이 왕성한 30~40대부터 노후 준비와 자산 구조 변경을 시작해야 한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순자산과 부채 그리고 투자자산의 수익률을 파악하는 것이다.

“의외로 자신의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은퇴설계를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실제 투자하고 있는 돈과 부채를 모두 공개할 필요가 있어요. 가계의 부채를 파악해야 정확한 투자 금액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연 수익률이 물가상승률을 넘는지, 이자도 별로 없는 곳에 넣어둔 예금은 없는지, 들어놓은 보험이 지금 우리 집의 상황에 맞는지, 손해가 난 펀드는 갈아탈지 말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특히 수익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투자 상품은 미련을 버리고 팔거나 갈아타기 등을 통해 재편할 것을 권했다.

(계속)





땅그랑 반튼 한인회 12월 소식



진정한 한인속에 하나되는 땅그랑 반튼 한인회!!

다사다난했던 2013년의 달력도 이제 한장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 한해동안 땅그랑 반튼 한인회에 깊은 관심과 많은 격려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바라는 소원은 각자 다르겠지만 모두가 더 웃고 더 많이 행복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금요일 제4회 땅그랑 반튼 한인회 골프대회 및 한인의밤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약 500여명의 땅그랑 한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로 제1부 골프대회, 제2부 한인의 밤 이었습니다. 제1부 골프대회에서 PT,SERIM 배재호님께서 #7 HOLE, 9 IRON, 133 YARD의 홀인원으로 대회가 더욱 빛났습니다.

제2부는 국악사랑의 상모 판굿을 시작으로 고등부 노래공연, 기타강좌반 공연, 내도 가수다, 럭키드로우의 순서로 진행되었고 초대가수 이범학씨의 깔끔한 무대매너와 노래는 행사의 흥을 돋구는 최고의 무대였으며 한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하나되는 자리였습니다.

올해는 땅그랑 문화원 각 강좌반의 수강생들이 전시회, 노래공연, 내도 가수다의 참여로 뜻깊은 행사가 되었으며 기념품, 럭키드로우 및 입장시 행운권 추첨을 통해 행사에 오신 모든 분들께 풍성한 선물을 드린 것도 큰 이벤트 중의 하나였습니다.

한인의밤 행사에 후원해주신 땅그랑 반튼 한인회 임원님들 및 여러 기업체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땅그랑 반튼 한인회가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땅그랑 반튼 한인회 한인의 밤



1. 행사 순서		
시 간	내 용	세 부 항 목
오전 11:30~	안내, 등록, 배부	골프 조편성 안내, 행사일정표, 행운권
오후 12:30~	TEE - OFF	SHOT GUN 방식---40팀 (160명)
석 식		부페(골프장)+한인회 준비 음식
제1부 행사 오후 6:00~ 사회자 : 신현만	개회선언 국민의례 개회사 내빈소개 축사 격려사 땅그랑 한인회 경과보고 건배 제의 및 구호 제창	사회자 국기에 대한 경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하연수 땅그랑 반튼 한인회 회장 하연수 땅그랑 반튼 한인회 회장 주 인도네시아 한국 공사 송창근 재인니 한인상공회의소 소장 이세호 전땅그랑 반튼 한인회 회장 신현만 땅그랑 반튼 한인회 수석 부회장 양영연 재인니 대한 체육회 회장 (땅그랑 한인회 우리는 하나)
제2부 행사 사회자 : 신완수	시상식 상모 판굿 노래 공연 기타강좌반 공연 초대가수 공연 내도 가수다 LUCKY DRAW 시상식 초대가수 공연 LUCKY DRAW 다함께~~합창!!	골프대회 국악사랑 (원순옥외 5명) 고등부 (오세중외 1명) 진준구외 3명 (제목 : 사랑과 평화, 걸어서 하늘까지) 이범학 정현재, 김경아, 최진이, 한지공예반 일동 사회자 내도 가수다 이범학 사회자 제목 : 아! 대한민국



■ ■ CNN이 선정한 한국 꼭 가봐야 할 곳 50

29. 함양 다락논

지리산 산자락에 있는 다락논은 계다늬 논의 아름다운 모습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여름에 논에는 하늘이 비쳐지며 가을에는 수확 시즌을 맞아 주위를 금빛으로 물들인다.

경남 함양군 마천면>>



30.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파주에 위치한 이 공원은 한국인들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다소 무서운 주제긴 하지만 그외에도 바람개비나 대나무 숲 등을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공원이기도 하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618-13

31. 지리산 뱀사골 실비단폭포

지리산에 위치한 이 폭포는 현재 근처로 들어갈 수 없게 된 곳. 아름다움에 반해 들어간다면 50만원의 벌금을 내야하니 들어가기 전에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들어가도록.

전북 남원시 지리산 뱀사골>>



32. 영산강

한국에 아름다운 강가가 많지만 한강만큼이나 아름다움을 뽑내는 강이 바로 영산강이다.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완벽한 132 킬로미터의 자전거길도 마련되어 있어 강가를 따라 담양에서부터 목포까지 달릴 수 있다.

전남 담양군 용면 용소리>>



33. 파주 심학산 꽃밭

심학산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마치 모네의 그림을 보는 것과도 같다. 한국에서 양귀비를 볼 수 있는 흔치 않는 곳으로 매해 6월 양귀비 축제가 열린다.

<<경기도 파주시 심학산

34. 황매산 철쭉축제

1,108 미터의 황매산은 소백산맥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로 매년 봄마다 철쭉으로 눈부시게 변하는 곳이다. 철쭉 축제는 5월에 시작해 2주동안 계속되며 사진을 찍기에 완벽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경남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산1번지>>

다음호에 계속





한해를 보내며... [감동을 선물 받다] 꿈을 이룬 '빠르띠' 이야기

서미숙 (수필가/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감사)
gaeunsuh@hanmail.net



“어머, 빠르띠가 고향인 솔로에서 슈퍼마켓 사장이 되었대요.”

“그렇대요, 억척스럽기로 유명한 여사장이래요.”

빠르띠의 성공신화 이야기는 자카르타 한국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그들의 우상이 되었고 그 이야기는 내 귀에도 전해져 왔다.

‘빠르띠’는 내가 인도네시아에 살게 된 초창기 시절부터 10여년을 훨씬 넘게 우리 집에서 가족처럼 함께 지내던 가사도우미 이름이다. 이미 그녀가 우리 집을 떠난 지도 어언 7년여의 세월이 흐르고 있을 무렵, 나도 그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고층 아파트에서 올려다본 자카르타의 하늘이 황홀할 정도로 신비롭고 아름다워 카메라의 셔터를 눌러대고 있던 어느 날의 오후였다. 비가 개인 청

명한 하늘에 떠있는 하얀 구름의 모습이 어찌나 맑고 선명한지 하늘을 바라보고 서있는 내 몸이 마치 구름에 빨려 갈 것 같은 느낌이었다. 한 컷의 그림 같은 정경을 담고 있을 무렵, 정적을 깨듯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오래전 우리 집에 있었던 빠르띠의 전화였다.

너무나 놀랍고 반갑기도 한 마음을 인도네시아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음이 아쉬울 정도로 호들갑스럽게 그녀의 안부를 물었다.

빠르띠는 옛날에 비해 차분하고 격조 있는 목소리로 변해 있었다. 노나인 나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 자카르타에서 일하는 고향 친구며 동생들에게 이사한 우리 집 전화번호를 수소문 했단다. 그녀의 고향은 족자에서 남쪽으로 좀 더 떨어진 솔로라는 곳으로 기억된다. 내가 인도네시아

에 처음 도착하고 얼마 안 되었을 무렵 그녀는 우리 집의 가사도우미로 들어왔다. 유난히 누렁고 큼지막한 치아를 드러내며 활짝 웃던 그녀가 무척 마음에 들었다. 한참 개구쟁이인 남자아이 둘이나 있어 번잡했던 우리 집에 나에게는 친절피붙이 만큼이나 도움이 되는 소중한 존재였다. 시골에서 중학교를 마친 후, 몸이 불편한 부모님과 3명의 동생들을 부양하기 위해 자카르타로 일자리를 구해서 올라왔다. 대부분 자카르타의 한국 집에서 일하는 다른 집 가사도우미들에 비해 그녀는 사뭇 다른 점이 많았다. 우선 기억력이 좋아 한번 가르쳐준 한국말의 용어들을 잊는 법이 없었다.

아이들에게 자상한 누나처럼 인도네시아의 자연이나 식물, 동물들의 이야기를 진지한 표정으로 들려 줄때면 녀를 놓고 듣고 있던 아이들의 흥미로운 표정이 지금도 떠오른다. 성실하고 따듯했던 그녀의 성격은 다른 뛰어난 점에 비해 빼놓을 수 없는 큰 장점이었다. 이웃들도 부러워 할 정도로 빠르띠는 나의 인도네시아생활에 한 획을 긋는 비중 있는 한사람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그 시절 재외학생들 수학을 지도하느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던 나였기에 둘째아이인 바쁜 엄마보다는 빠르띠 누나를 더 잘 따르고 좋아했다.

신기할 정도로 많은 이야깃거리를 간직하고 있던 빠르띠는 상황을 묘사하듯 재미있게 들려주었는데 그 덕에 아이들은 인도네시아 언어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다.

유난히 벌레를 무서워했던 나는 도마뱀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랄 때면 내 앞에서 덩석 잡아 장난기 섞인 미소로 나를 안심 시키고 은근히 담력을 자랑하기도 하였다.

때로는 친진스럽기도 하고, 나이에 비해 어른스러운 구석도 많았다.

행어나 아이들이나 내가 아플 때면 밤을 꼬박 새우며 간호하는 것은 물론 아픈 사람보다 더 걱정스럽게 눈물을 푹푹 흘렸기에 우리 식구 모두는 든든한 그녀에게 많은 의지가 되었다. 그렇게 빠르띠의 덕을 많이 보며 초창기 인도네시아 생활을 보냈다. 그 무렵 나는 성실하고 착하고 부지런했

던 그녀를 위해 한 가지 묘안을 떠올렸다.

열대의 나라인 인도네시아에 살아오면서 안타까운 점이 있었다면 자카르타에서 일하는 젊음의 절정기인 이들에게는 ‘꿈’에 대한 인식이 희박했다. 고향인 시골에서 자연과 더불어 순박하게만 살아온 탓일까? 스스로의 꿈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했다. 그랬기에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작은 실천의 하나로 그녀의 꿈을 이루어주고 싶었다. 틈틈이 연필로 무언가를 끼적이며 간혹 책도 들여다보는 학구적인 모습이 몇 번이나 내 눈에 들어왔다. 빠르띠가 원한다면 공부를 더 시켜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편안히 얘기할 기회가 주어졌다.

내가 빠르띠에게 물었다. “빠르띠는 이다음에 무엇이 되고 싶으냐고,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느냐”고. 그녀는 다부진 표정으로 대답했다. “동생들이 학교를 다녀야하기에 본인은 공부하는 것은 그만 되었고, 돈을 부지런히 모아 고향에 조그마한 가게라도 하나 내는 것이 꿈입니다.”

“꿈이란 마음먹으면 반드시 이룰 수 있는 거야, 그렇지만 현재의 삶에서 그 꿈을 실천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반드시 달라질 수 있는 거란다.” 그날, 나는 빠르띠에게 꿈에 대한 굳은 의지와 용기, 그리고 희망을 심어 주었다. 영민한 그녀의 큰 눈이 더욱 빛나고 있었다. 다음날, 나는 그녀의 꿈을 실현하기위한 한 가지 제안을 하였다. 무조건 빠르띠 월급의 50퍼센트를 통장을 만들어 저축을 하자고 했다. 그녀도 흔쾌히 수락을 했고 나머지 월급으로 시골에 돈을 보내며 자신에게는 거의 쓰지 않고 절약하는 모습이 눈물겹도록 대견하고 기특했다.

당연히 나는 최대한의 월급을 주었음은 물론이다. 그렇게 성실하게 우리 집에서 13년을 하루같이 열심히 저축을 했고, 해마다 보너스는 물론 성실수당까지 합해 그녀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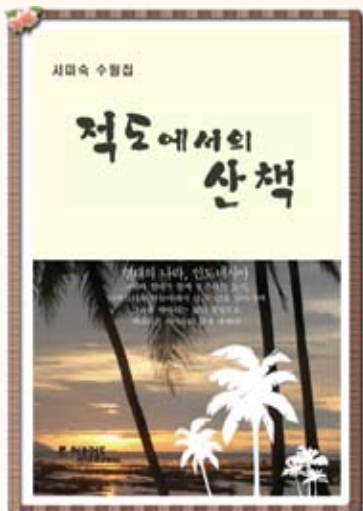
그렇게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빠르띠는 한눈팔지 않고 착하고 성실하게 우리 집에서 식구처럼 함께 살았다. 드디어 그녀가 우리 집을

떠나기로 한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내가 생각해도 10대 후반에 우리 집에 온 빠르띠는 이미 결혼할 나이를 한참 지나 있었다. 이제 그 정도면 시골에서 집이라도 한 채 사고도 남을만한 큰돈이 모아졌다. 결혼할 신랑을 우리 식구들에게 소개하며 빠르띠가 짐을 챙겨 떠나던 날은 우리 집은 이별의 진통을 치르느라 한동안 울음바다가 되었다. 나도 그녀를 떠나보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그녀가 떠난 지도 어언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아이들도 다 인도네시아를 떠나 한국으로 대학을 갔고, 빠르띠는 우리 가족의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있었기에 그녀의 전화는 뜻밖이었고 반갑기 그지없었다.

지금 빠르띠는 고향인 솔로에서 꽤 규모가 큰 슈퍼마켓의 사장이 되었다. 성실함과 끈기와 인내심을 충분히 갖춘 그녀였기에 고향에서 꿈을 이루고도 남았으리라 나는 믿고 있었다. 그 당시 우리 집에서 떠날 때 퇴직금을 비롯해 저축한 돈이 사업자금의 큰 종자돈이 되었다. 그때 내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의지와 희망을 심어 주지 않았던들 지금의 자신은 없었노라고 전화기 사이로

전해져오는 그녀의 진심어린 눈물은 내 마음을 한없이 벅차게 했고 넘치는 감동을 안겨 주었다. 그렇게 우리는 전화기를 사이에 두고 한참을 서로 말을 잊지 못했다. 한사코 우리 집 주소를 묻던 그녀는 며칠 후, 큰 박스의 선물을 보내왔다. 그 당시 내가 주었던 옷이며 화장품들이 너무 고마웠노라고... 그녀의 마음이 담긴 긴 편지와 함께...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불편한 인연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지만 나는 빠르띠 처럼 좋은 인연을 만났음에 감사한다.

이제 2013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인생은 정말 기도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걸까. 늘 목마른 삶 속에서도 인연으로 맺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를 높여 달라고 기도하는 삶이었다. 한그루의 나무도 정해진 순환의 되풀이만을 거듭하지만 겨울이면 앙상하게 말랐다가도 새봄이면 다시 속잎이 돋고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난다. 이곳 인도네시아에서 올 한해는 우리 한인들에게 경제적으로 혼란이 거듭된 한해였다. 새해에는 반드시 새로운 의미의 빛깔로 꽃을 피우는 멋진 한해가 되리라고 감히 자부해 본다.



제목 : 적도에서의 산책 지은이 | 서 미 숙
퍼넛 | 도서출판 허브월드 홈페이지 | www.herbseed.com

적도에서의 산책은 ---

동남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미숙 작가가 지난 20여 년간 적도의 삶 속에서 얻은 인생의 발견과 깨달음을 담은 수필집 적도에서의 산책이 발간돼 화제다. (2013.10월)

저자는 적도일대 열대의 나라인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서 살아오면서 그곳에 사는 한국인들의 삶과 체험이 담긴 이야기를 감성적인 글로 표현했다.

읽는 이로 하여금 강렬한 열대의 햇살과 비와 바람을 느끼게 해준다. 적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작가의 인생을 통해 삶을 대면하는 긍정적인 자세와 타인을 배려하는 사랑의 메시지로 아름다운 감성을 전하고 있다.

鄭木日(한국 수필가협회 이사장/한국문협 부이사장)은 적도에서의 산책은 한국 수필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획기적인 일이라고 표현했다. “공간성(적도의 나라인 점)과 시간성(20여년)을 통해 삶의 실상에서 얻은 감동과 느낌을 살려 타국에서 새로운 발견과 의미를 피워 낸 것이기에 문학의 새로운 장을 여는 대단한 일이다” 며 한국 수필의 공간성과 소재를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한 수필의 진면목에 닿아있는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어머님의 자수

시/그림 : 이 태 복

-1.
스물여덟에
지아비를 떠나보내고

사립문을 열고 나가
새하얀 서리 받고
서 있던 날 몇 날이던가

달빛 시린 강가에
고무신 벗고 산건만
머리맡에 새군새군
눈에 밝히는 피붙이들

-2.
수트를 든다.
골무도 끼지 않고
손가락 짚러가며

열여덟에 수동건
송학에 달

한 땀 한 땀
눈물자욱 메우며
세월의 수를 놓아간다.

이 태 복 약력

2011년 아름다움 나눔 서양화 참여
제2회, 제3회 한-인니 문화 연구원 인터넷 공모전
장려상 수상 및 제3회 특별상 수상,
현.한-인니 문인협회 회원
한인 라디오 방송
"이 태복과 함께하는 인니 이야기" 시나리오 작가 및 진행



가톨릭인의 묘지 묘비박물관

(Museum Taman Prasasti)

사공 경(한*인니문화연구원장/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장)

어떤 형태의 죽음이든 죽음은 살아 있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미지(未知)이며 공포이다. 묘비박물관은 인간 생애의 흔적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이 세상에 왔다가 먼저 간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자신의 삶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된다. 박물관 입구에 이러한 현판이 새겨져 있다.

“어제 나는 너희들과 같은 장소에 있었다.

너희들도 내일은 나와 같은 장소에 있을 것이다.”

오늘을 사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영혼과 침묵의 시다. 저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어디를 향해,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 를 자신을 향해 진지하게 묻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이 박물관은 말하고 있다.

묘비박물관은 1795년에 설립된 Kebon Jahe 공

동묘지로부터 시작된다. 입구 건물은 1884년에 세워졌다. 주로 Tanah Abang 공동묘지로 알려졌으며 바타비아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유럽 가톨릭 교인(주로 네덜란드인과 영국인)을 위한 묘지였다. 1808년에 신 네덜란드 교회(현 와양박물관)가 지진으로 무너졌을 때 그곳에 있던 묘비도 이



곳으로 옮겨졌다. 이 묘비들은 신 네덜란드 교회를 뜻하는 HK 약자로 표시되어 있다. 박물관 입구 벽에 말없이 서 있는 26개의 묘비는 겹쳐진 세월을 엄연한 현실로 말해준다.

독립 후에도 계속 묘지로 사용하다가 1975년에 이 묘지의 시신은 Tanah Kaiser 묘지로 이장(移葬)하고, 묘비만 재배치되어 1977년 7월7일 묘비박물관으로 공개되었다. 당시 묘비는 1372개였는데 지금은 (2010년) 교육가, 예술가, 과학자, 성직자, 영웅, 등 1409개의 가톨릭 교인의 묘비를 보관하고 있다. 원래 5.5헥타르였으나 도시 개발로 인해 1.2헥타르로 줄어들었다. 이 박물관은 인도네시아의 전통묘지와 고대묘비, 영구차뿐만 아니라 과거의 조각과 달필도 보여준다. 그 중에 수카르노 대통령과 하타 부통령의 관(棺)과 영구차도 전시되어 있다. 이 야외 묘비박물관 묘비의 주인들은 주로 1795년에서 1900년대에 묻힌 것인데 오래된 것으로는 17세기, 18세기의 묘비들로 다른 곳에서 이장(移葬)된 것이다. 대부분이 저명한 네덜란드 가문의 묘비이다.

*네덜란드 오성장군 코흘러(J. H,R Kohler, 1818~1873) 묘비1873년에 일어난 1차 아제 전투에서 폭풍을 몰고 다녔던 네덜란드 사령관 코흘러의 비문은 위엄이 있어 보인다. 그의 묘비는 1989년 자카르타 역사박물관청에서 만들었다. 반다 아제 지역에 그의 묘비가 있었지만 1975년 아제 시민들에 의해 파괴되었다. 그는 용감한 아제의 손 총에 심장이 뚫려 죽었다.

*1960년대 학생운동가 수혹기(Soe Hok Gie, 1942~1969) 묘비수카르노 체제에 반대한 운동가이자 인도네시아 국립대학(UI)에서 자연을 사랑하는 모임을 만든 수혹기의 묘비는 '투쟁가' 라기보다 원칙을 고수하는 대학생의 모습으로 묘



사되어 있다. 1983년 “데모 참가자의 기록”이라는 일기가, 1995년에는 “변천 시기”가 발간되었다. 그 외에 1999년에 학사 논문 “빨간 등불 밑에서”가 발간되었다. 고통당하는 민중에게 항상 용기를 주었던 박애주의자인 그녀는 27세의 젊은 나이에 스메루 (Semeru) 산에서 독가스로 의문의 죽음을 당한다.

*고대인형 연구가 린도르(Lindor Serrurier, 1846년생)의 묘비1896년 바타비아로 와서 1901년까지 대학 교수로 지내면서 고대 인형에 대한 연구를 완성했고 많은 저서를 남긴 린도르 교수의 묘비는 십자가 형태이다. 1881-1892년까지 라이덴(Leiden)박물관 관리자로 재직하면서 자료 수집과 소장품 목록을 3번씩이나 체계적으로 수립했다.

*발리어(語)를 연구한 J.L.A. Brandes의 묘비.유명한 고고학자이며 Bahasa Bali를 연구한 Brandes는 로테르담에서 태어나 조국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 인도네시아에서 일생을 마쳤다. 인도네시아의 사회과학 분야에 많은 업적을 남긴 그의 묘비는 힌두 사원을 연상 시킨다.

*래플스(Thomas Stamford Raffles)경의 친구 라이덴(John Casph Leyden)과 부인 올리비아(Olivia Marianne Raffles, 1814. 11. 26. 별세)의 묘비영국인 부총독 토마스 스태포드 래플즈가 불꽃처럼 사랑했던 10살 연상의 부인, 올리비아의 오래된 묘비는 8개의 낮은 둥근 기둥으로 둘러싸여 있다. 라이덴은 의사였고 래플즈와 매우 친한 친구였다. 지금 이곳에 올리비아와 나란히 묻혀 있다. 올리비아의 묘비는 때마침 저공비행하던 잠자리 떼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다. 그녀는 43살에 보고르에 죽었으며 보고르 식물원에서 그



녀의 기념비를 볼 수 있다.

*최초의 의과대학 STOVIA를 재 설립한 롤(Dr. F.Roll, 1867~1933)의 묘비롤은 UI의대의 기초가 된 STOVIA 대학을 재 설립했다. 그의 묘비는 담백한 책으로 장식되어 있다. 1851년 설립된 STOVIA 의과 대학을 그는 유럽 의과대학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다. 교과 내용의 질을 높이고 규율을 세워 실력 있는 학교로 만들고 재정 지원을 위해 많은 기부금을 냈다. 마침내 롤에 의해 스토비아는 재 설립된다.*총독 가문 Reimsdijk가(家)의 묘비 Reimsdijk가(家)의 묘비는 직사각형의 형태로 품위가 있다. 이 집안의 Jeremias (Jeremias van Riemsdijk)는 후에 식민지 총독(재임기간, 1775-1777)이 되어 자카르타에서 가장 아름답고 호화로운 집에서 살았는데 이 집은 아깝게도 1985년의 화재로 소실되었다. 설탕사업가인 그의 아들 할벤티우스가 묘지 확장을 위해 이곳 묘비박물관에 땅을 기증했다. 사람들은 이 묘비가 비옥과 안전, 부, 행복을 준다고 믿는다. 자기 이름에서 3개의 자를 빼서 Jas라는 호칭을 받았다. Jas 총독은 1777년 10월 3일 바타비아에서 서거했다.

*미첼(Jonathan Michels)의 묘비조나단 미첼은 바타비아의 덕망 있는 부자였다. 모자를 좋아했고 고급스러운 유럽풍 옷을 즐겨 입은 지주였는데 Kelapa Tunggal에 개인 산을 소유했다. 18세기 군대에 축제를 보급시키는 일을 했다. 그의 묘비에는 산과 제비가 그려져 있고 묘비 위에 지붕이 세 개 지어져 있는데 이는 행운을 상징한다.

*1846년 발리의 불레렝(Buleleng) 전쟁에서 서거한 미첼 (A. V. Michiels, 1797~1849)네덜란드인 Michiels은 17살 때 군인이 된다. 1817년 자바로 와서 찌르본에 일어난 반란 운동에 참

여했으며 디뵤느고로 독립전쟁에 공을 세움으로 1827년 소령이 되었다. 그 후 이맘번절 (Imam Bonjol)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1837년 대령이 된다. 1849년 2월 8일 네덜란드 동인도 군사(KNIL) 사령관으로 불레렝 전쟁에 참여한다. 그러나 그 용감한 군인대장도 발리인들의 기상에 죽게 된다. 군인 대장 미첼은 민중에게는 호의적이었다고 한다. 그의 성취를 존경하기 위해 네덜란드 정부가 바타비아에 그의 기념탑을 세웠다. 그의 묘비 윗부분은 그의 영광을 상징하는 트로피로 되어 있다.

*독일인 에르베르펠트(Pieter Erberveld)의 묘비네덜란드를 비난하며 대항한 독일인 에르베르펠트의 묘비는 검은색의 돌로 묘비의 중앙을 장식하고 있다. 묘비의 윗부분은 해골로 처리되어 있고 총검으로 구멍이 뚫려 있다. 그의 묘비 앞에서 숙연한 마음에 고개가 숙여진다. 그들의 복지를 위해 힘쓰다가 스파이 죄목으로 말 네 마리에 사지가 찢겨 죽는 죽음을 당했다. 신발업을 한 그는 매우 부자였고 어머니가 태국 사람이었다. 특히 아시아계 여자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네덜란드의 정책에 분노했다. 독립운동을 하는 인도네시아인들에게 지하자금을 주었고, 스파이 죄목으로 말 네 마리에 사지가 찢겨 죽는 죽음을 당했다.

*카피튼 자스(Kapiten Jass)의 묘지카피튼 자스 묘지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나 성묘를 위해 자주 찾아오며 소원을 이야기하는 곳이다. 바타비아의 17세기 생활은 매우 나빴으며 사람들이 바타비아로 오는 여정에 지쳐 많이 죽게 되었다. 그래서 Jassen교회가 매장지가 되었으며 18세기에 이곳으로 합장 묘를 옮기게된다. 시신을 Tanah Kusir로 옮길 때 이 묘지의 시신만은 옮길 수가 없었다. 나무뿌리가 너무 깊게 많은 뼈와 뒤엉켜 있었기 때문이다. 자스의 묘비는 큰 나무 아래에서 예수님과 천사와 가나 혼인 잔치를 연상시키는 항아리와 함께 편히 쉬고 있었다.

*대성당 Katedral을 추진한 주교 Adami Caroli Claessens

*대성당 Katedral 완성한 주교 Walteru Jacobus Stall의 묘비 Adami Caroli Claessens은 1847년에 인도네시아에 온 후 대성당 Katedral 설립을 추진했고 인도네시아 여러 지역에 가톨릭을 전파했다. 후에 그는 추기경으로 추대된다. 그 후 Katedral을 설립을 완성한 주교 Walteru Jacobus





Stall의 묘비는 맨 위의 십자가와 함께 교회를 상징하는 뿔족 탑의 모습으로 성스럽게 서 있다. 그는 1875년 인도네시아로 왔으며, 주로 수마트라 Banka의 중국 사람들에게 정열을 쏟았다. 1893년 바타비아의 주교가 되어 대성당 Katedral를 완성하고 교구와 교회를 위해 헌신했다. 선교를 위해 Kei 군도에 오래 머물면서 선교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그는 질병으로 고통 받으면서도 하느님이 맡긴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1897년 Ambon으로 갔으며 결국 반대(Banda) 해(海)의 선상에서 선종하였다. 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바타비아의 모든 배에 조기를 달았다고 한다. 군인들과 시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교회 장으로 치르진 그의 장례식엔 애도의 물결이 넘쳤다.

* 찬란한 사랑을 실천한 신부 H. Van Der Gritten의 동상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한 생애를 바친 Gritten 신부님의 동상도 장엄하게 서 있다. 그의 묘비에는 환자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새겨져 있다. 한 세상 떠돌아 살던 이민살이도 조용히 주님의 품안으로 돌아갔기에 이국의 하늘 아래서 외롭지 않았으리라. 꽃과 같은 영광을 위하여 허무하게 삶을 다하지 않았기에 그들의 죽음에는 영혼의 울림이 있다. 그 외에도 한 시대(1930년대)를 풍미한 오페라 가수 Miss Riboet, Bogor에서 이장된 일본 군인들의 합장묘비, 유치환의 ‘바위’를 연상케 하는 고고학자이며 역사학자인 Dr. Stutterheim의 묘비 등, 그밖에도 많은 사람들의 묘비가 있다.

관리 소홀로 생긴 잡초는 악이 무성한 이 땅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 하느님께로 향하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천사 상(像).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는 예수님 상. 마리아와 사랑을

상징하는 장미 화환들. 기도하며 애도하는 어머니 상, 슬피우는 여인 상..... 이 기도의 물결이 초록 속에서 뭉게구름으로 피어올라 죽음의 신비를 더해준다. 신비는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우리의 생각 속에 또 다른 침묵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 맑고도 무거운 날, 묘비박물관에 가자. 가서 삶과 죽음이라는 바닥 모를 무거운 상념과 마지막 열차에 대한 조바심을 Museum의 색깔과 향기로 녹이며 인생과 자연의 법칙들의 균형에 대한 책임감을 회복해야한다. 한해의 마지막 12월에 진실한 삶의 몸짓이 울부짖는 묘비박물관에 가서 나도 저 천사처럼 내게 등 돌린 모든 것에 대해 기도하고 싶다. 추기경 Adami Caroli Claessens의 묘비에 있는 사랑의 십자가는 외로운 12월의 햇살로 오래도록 빛났다.

Jl. Tanah Abang No.1 Jak. Pus. 화~일: 9시-3시 (021)385-4060

사공경

(0816-190-9976 / (+62 21) 794 1963 /
Email : sagong@hotmail.com)

사단법인 한*인니문화연구원
(www.ikcs.kr)

Yayasan Kebudayaan Harapan Antar Bangsa
INDONESIAN & KOREAN CULTURE STUDY

한인성당 맞은편 Graha STK 3층 306호
Jl. Taman Margasatwa No. 3,
Busway SMK 57 Ragunan, Jakarta Selatan

Tel. (+62 21) 7883 9597

Fax. (+62 21) 7883 9598

Email apakabarindonesia@hotmail.com

jalanjalanindonesia@ymail.com (문화탐방)

lovekoin@hotmail.com



계약법 (3)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10.2.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위임 사항
 일반 사회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항은 위임을 인정받는다. 그러나 법적으로 위임을 불허하는 사항들이 있다. “예” 를 들면 유언이나 유서이다. 유서 혹은 유언을 이러 이리한 내용으로 위임한다는 위임장은 위임자와 피위임자 간에 합의하고 서명이 되어 있어도 법에서 불허하는 사항이므로 원인 무효이다.

10.3. 재위임
 위임장에 재위임을 금한다는 내용이 없는 한 피위임자는 위임받은 사항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제삼자에게 재 위임할 수 있다. 위임장에 재피위임자의 이름이 들어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만 재위임을 해야 하며 없는 경우에는 피위임자가 임의로 재피위임자를 정할 수 있다. “예” 를 들면 직원에게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오라고 현금 인출 위임장을 준 경우에 위임장에 재위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직원이 현금 인출 위임장을 제삼자에게 재위임해도 불법이 아니다.

10.4. 위임자의 의무

10.4.1. 위임자는 피위임자가 위임장의 내용에 따라 이행한 위임 내용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피위임자가 위임 내용을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모든 권리와 책임이 위임자에게 있다. 피위임자가 위임장으로 위임자를 대리하여 제삼자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제삼자가 계약 내용을 어기면, 위임자는 피위임자를 거치지 않고 제삼자에게 곧바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거꾸로 피위임자가 계약 내용을 어기게 되면 제삼자의 손해 배상 청구 대상이 피위임자가 아니고 위임자가 된다.

10.4.2. 피위임자에게 보수를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위임장을 주면 법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관계가 되므로 위임자는 피위임자에게 반대급부 지급 의무가 있다. 그러나 양자 간에 반대급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양자 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에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 반대급부의 크기는 총 소득 금액의 3%, 총 지출 금액의 2%, 밀천의 1.5%이나 양자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 내용이 유효하다. 피위임자에 대한 반대급부는 위임내용의 승패에 관계없이 위임자가 피위임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위임자가 피위임자에게 반대급부 지급을 거부하면 피위임자는 피위임자의 관할 아래 있는 위임자의 재산에 대하여 위임자의 인계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10.5. 피위임자의 의무

10.5.1. 피위임자는 위임받은 사항을 위임장의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in good faith) 수행해야 하는 법정 의무가 있다. 피위임자가 위임받은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위임자는 피위임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고객(위임자)이 증권회사(피위임자)에게 특정 회사의 증권을 특정한 시기에 매입 혹은 매각을 위임했는데 피위임자인 증권회사가 위임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위임자인 고객은 증권회사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0.5.2. 위임자에게 위임장의 내용 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대부분의 피위임자들이 잘 지키지 않은 상황이나, 법에서는 피위임자는 위임장의 내용 이행 결과를 위임자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소를 당할 수도 있다. 법에 정해진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범하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금전차용 관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가 준 담보 부동산 매각 특별 위임장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권을 변제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부동산 매각 특별 위임장의 내용 이행, 즉, 채무자의 부동산 매각 결과를 위임장을 준 채무자에게 보고치 않으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임장 내용 이행 결과를 보고치 않은 이

유를 들어 거꾸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위임장을 준 채무자에게 결과 보고를 하지 않은 행위는 민법상의 범법 행위이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손해 배상 의무를 지게 된다. 위임장은 피위임자에게 대리권을 주면서 동시에 의무를 부과시킨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10. 6. 위임관계 종료(위임장의 효력 상실)

10.6.1. 위임자가 위임장을 취소하고 피위임자에게 취소 사실을 적법한 방법으로 통지하면 위임자의 효력이 상실한다. 그러나 취소 불능 위임자인 경우에는 위임자가 피위임자에게 위임장 취소를 취소 통보해도 위임장의 효력이 상실하지 않고 계속 유효하다. 현실적으로는 거래 관계에는 취소 불가 위임장이 많이 있다.

10.6.2. 위임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위임장의 효력을 상실한다. 차명으로 사업하는 경우에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사망하면 실제 주인이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서명한 위임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위임장이 실효하므로 실제 주인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10.6.3. 피위임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위임장이 실효한다.

10.6.4. 위임자가 법원으로부터 금치산 선고 혹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위임장은 실효한다.

10.6.5. 피위임자가 법원으로부터 금치산 선고 혹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위임장은 실효한다.

*10.7. 위임 시 유념해야 할 사항

10.7.1. 위임장은 위임자가 피위임자에게 특정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위임하는 것뿐이며, 위임자와 피위임자 간에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관계가 아니라는 잘못된 견해 때문에 위임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분쟁은 사전 예방을 위한 조치가 가장 바람직하므로

거래 관계에서 작성하는 위임장은 양자의 권리와 의무 사항을 사전에 분명하게 약정하여 사전에 분쟁이 발생 할 수 있는 소지를 없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7.2.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할 내용에 대하여 위임장을 해 주는 것은 위임자 입장에서는 불리하다. 계약은 가능하면 위임하지 말고 계약 당사자가 직접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7.3. 위임장은 취소시키지 않으면 그 효력이 계속 유효하므로 위임 내용이 이행되면 곧 위임장을 취소시킴이 바람직하다.

10.7.4. 무기한 유효 위임장을 주지 말고 시한부 위임장을 주어 정한 시기가 지나면 위임장이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토록 한다.

11. 채무 보증

채무보증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하여 채무가 이행이 되도록 채무자 이외에 제삼자가 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법률적 행위로서 보증인과 채권자 간에, 또 보증인과 채무자 간에, 당사자들의 의사에 구애 없이 법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관계가 성립된다. 채무보증을 서 줬다가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해 보증인의 집이나 아파트 등 부동산

산이 채권자에게 넘어가 뜻하지 않은 손해를 보는 보증인을 가끔 본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자식, 형제 혹은 친구의 채무 보증 요청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한국적인 인간관계나, 회사에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데 회사의 대표로 있는 사람이 차입 자금을 대한 채무 보증(Personal Guarantee)을 거부하지 못하는 기업 풍토 때문에 채무보증을 썼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필자가 아는 전문 경영인 기업인들 중에 한 사람은, 대기업의 대표 재직 시 회사 차입금에 대하여 채무 보증을 해 줬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회사가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자, 이미 수년 전에 그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그룹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지금 불러 다니며 고초를 겪고 있으며, 다른 사람은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아예 인도네시아 생활을 포기하고 퇴직해서 영구 귀국해버렸다. 자의이던 타의이던 채무 보증을 서게 되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신적인 부담과 경제적인 손실을 면하기가 힘들어진다.

11.1. 채무보증의 본질

11.1.1. 채무보증은 부속계약이다. 본 채권채무 계약이 있어야만 채무보증에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채권채무 계약이 없으면 채무보증도 있을 수 없다.

11.1.2.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하여 채무를 갚기 전에는 보증인은 채무 이행의무가 없다. 그러나 보증인의 최고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채무자와 똑 같이 상환 의무가 있다.

11.1.3. 채무보증의 한도는 본 채권채무 계약의 한도를 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차입



금이 1억 Rp인데 채무보증은 2억 Rp로 할 수 없으며, 본 채권채무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조건보다 더 불리한 조건으로 할 수 없다. 채무 보증의 한도는 반드시 본 채권채무 계약의 금액이나 조건 범위 내이어야 한다. 그러나 무한 채무보증인 경우에는 원금, 이자와 연체로 인한 손해까지 배상의무가 부과된다.

11.1.4.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보증인이 될 수 있다.

11.1.5. 구두 채무 보증도 법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 시 구두로 채무를 보증했다는 입증이 어려우므로 채무 보증은 서면 특히 공정증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1.6. 채무 보증은 상속한다. 보증인의 사망 시 보증인의 유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에게 채무 보증이 상속된다.

11.1.7. 미성년자나 금치산자를 채무 보증인으로 세우는 것을 금한다.

11.1.8. 채무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의무가 있는 채무자는 민법상 보증인 결격 사유가 없는 인도네시아 국내 거주자를 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11.1.9. 채무자가 세운 보증인을 채권자가 동의했으나 보증인이 채무 보증 이행 불능 시에는 채무자는 다른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법원의 판결로 세운 보증인에 대해서도 같은 Rule이 적용된다. 그러나, 채권자가 보증인을 파산시켰을 경우에는 채무자는 새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책임이 없으며, 이런 경우에는 판사도 채무자에게 새 보증인 세우라는 판결을 내리는 것을 금한다.

11.1.10. 법원의 판결로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경우에는 저당권이다 담보권으로 보증인을 대신 할 수 있다.

11.2. 보증인과 채권자와의 관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증인의 최고 항변권이 없다.

11.2.1. 보증인이 최고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는

행에서 대출해주면서 통상 회사의 책임자에게 채무보증 Personal Guarantee를 요구하며 동시에 보증인 항변권 포기 선언 공정 증서에 서명을 요구한다. 이 서류에 서명을 한 회사 책임자는 채무가 완전히 상환 될 때 까지는 정신적인 부담감을 버릴 수가 없을 것이며, 혹시 회사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피해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11.2.2. 보증인이 연대 보증인인 경우

연대 보증인은 채무자와 똑같은 채무이행 의무가 있다. 그냥 보증인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언제든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채무 만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비로소 보증인에게 채무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채무를 갚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채무자가 재산이 있다는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하기 전에는 보증인에 대하여 청구 또는 집행을 할 수 없다. 보증인의 최고의 항변권 행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 집행을 게을리 하여 채무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증인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연대 보증인 경우에는 보증인이면서 채무자와 같은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보증인의 최고 항변권이 없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연대보증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로 보증인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연대보증을 피해야 할 것이다.

11.2.3. 채무자가 파산선고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최고 항변권이 없다.

11.2.4. 채무자가 법인이며 채무자인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최고항변권이 없다.

11.2.5. 법원 판결로 채무 보증인이 된 경우에도 보증인에게 최고항변권이 없다.

(다음 호에 계속)

“내년에는 경기가 좀 좋아질까요?”

2014년 인도네시아 경제 전망 “내년엔 좀더 나아진다”



글: 신성철 데일리인도네시아 대표

“올해도 어김없이 국내외 기관들의 경제 예측이 빗나갔다. 세계 각국에 전담 애널리스트를 두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도 맞추지 못했다.”

최근 10년과 같이 불확실성이 크고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는 전망 모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예상치가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애널리스트들의 해명 내지는 변명이다. 반면 독자들은 “잘 맞지 않는 경제 예측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의문도 제기하지만 경제 전망은 반드시 필요하다. 기업과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할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한인뉴스 1월호에 게재하는 ‘2014년 인도네시아 경제 전망’은 하나금융그룹이 지난 11월 28일 자카르타에서 연 ‘2014년 경제 전망 세미나’와 ‘2014 매경 아웃룩’ 등 국내외 전문 경제 기관과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을 정리한 것이다.

‘경제 성장 전망은 보수적으로, 환율 전망은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전제하에 애널리스트들의 2014년 인도네시아 경제 전망에 대한 결론을 요약한다면,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고 중국의 경제 불안 등 위험 요인이 있지만, 선진국 경제가 회복하면서 수출이 증가하고 내년 총선과 대선으로 선거 자금이 풀려 내수

경기가 경제를 부양해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더 나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나금융그룹이 주최한 ‘2014 경제 전망 세미나’에 연사로 나선 안톤 구나완 다나몬은행 수석경제연구원은 “내년 상반기에 양적완화 축소가 단행된다면, 루피아/달러 환율이 일시적으로 12,000루피아를 넘을 수도 있지만, 이후 안정을 찾아 내년 하반기에는 환율이 10,858루피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올해보다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환율은 다소 강세를 보여 내년 경제성장률은 5.86%가 될 것이며, 내년 총선과 대선으로 선거자금이 풀리면서 운송과 미디어 등 여러 산업 부문이 호황을 누리며 내수 경기를 부양해 국내총생산(GDP)을 0.2% 끌어올릴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펼쳤다.

이어 안톤 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구미 선진권으로부터의 투자가 둔화됐지만 한국, 싱가포르,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대인도네시아 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는 광업 부문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나몬은행 경제연구소의 내년 경제 지표 전망에 따르면 올해 수출과 수입은 각각 -4.0%와 -2.2%에서 내년에 4.5%와 5.6%로 증가할 것이다.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올해 -3.1%에서 -2.8%로, 재정 적자는 -2.1%에서 -1.8%로 각각 감소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8.7%에서 4.9%로 호전될 것이나 기준금리는 7.5%에서 8.0%로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의 영향권에 있는 인도네시아 경제 최근 신흥국의 성장세는 글로벌 교역 부진과 원자재 가격 약세로 둔화되기 시작했으며, 중국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성장 모형을 전환함에 따라 타격을 받고 있다. 신흥국의 높은 성장에 찬

사를 보이던 글로벌 투자자들이 높은 부채 비율과 경상수지 적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최근 수년간 잘나가던 경제가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동시에 적자를 기록하는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등 궁지에 빠졌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로 지난 3분기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감에 따라 루피아가 급락하자 인도네시아은행(BI)은 금리를 올려 외환시장 방어에 나섰다. BI는 올해 6월 이후 지난 12일까지 5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7.50%로 1.75%포인트 인상했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6월 보조금 석유가격을 평균 33% 인상함에 따라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내수 경기를 압박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2분기 이후 5분기 연속 떨어져, 지난 3분기 5.6%에 그쳤다.

인도네시아가 광물을 수출하는 주요 시장인 중국과 인도 경제가 둔화되면서 그 파장이 인도네시아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 광물 수출이 줄었고,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 경상수지는 올해 들어 더욱 악화돼 2분기 98억 달러, 3분기 84억 달러를 기록했다.

2014년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요소는 그동안 부진했던 수출의 회복 여부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선진권의 수요 감소가 지난 수년간 이어졌으나 내년에는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가 내수 시장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함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대중국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구미 선진권으로부터 투자가 둔화됐지만 한국, 대만,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역내에서의 투자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세계의 공장’으로 주목받아 온 중국의 빠른 임금 상승으로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국 시장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정유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중국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간 상호관계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건조한 내수와 대외환경 개선에 따른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신흥국의 전망을 다소 어둡게 본 김영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IMF가 ‘2014년 경제 전망’에서 세계 경제성장률을 3.6%로 예상했지만, 보수적인 시각에서 보는 게 좋겠다”며 “미국, 일본, 유로존 등 선진국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부채한도 상향 문제, 중국의 성장 둔화, 유럽의 역성장 등 위험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글로벌 교역 부진과 원자재 가격 약세로 신흥국의 성장세가 둔화되기 시작했고 중국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성장 모형을 전환함에 따라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외환위기 가능성 낮다

이재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5월 미국 연준위의 양적완화 정책 축소가 가능성 제기와 2013년 8월 인도발 금융위기 확산설 등으로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증시와 환율 등 금융 전반에 큰 충격을 줬다. 이후 증시와 환율이 빠르게 회복되는 추세이지만, 인도네시아가 금융권의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나, 외부 충격으로 인한 금융 부문의 불확실성이 향후 동남아시아 주요국들의 경제 성장 여부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음은 확실하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협력 관계가 강화되고 있다. 지난 10월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 합의함에 따라 향후 자동차, 금속, 전기, 전자 등 한국의 주력 산업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여건이 보다 용이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양국간 통화스와프 체결로 양국 통화를 무역 거래에 활용하는 길이 열림으로써 환리스크가 제거되고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하는 등 변화가 예상된다.

정유타 연구원은 미국 양적완화 축소가 루피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최근 수개월전 양적완화 축소 우려로 시장이 뚝뚝해졌다.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볼 수 있다”라며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대응 정책이 신뢰를 받지 못한 만큼 앞으로 내놓을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쌓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화제의 도서를 소개합니다!!



이중섭 세트

최문희 저 | 다산책방

일제강점기인 1916년 평안남도 평원에서 태어나 전쟁의 상흔이 짙은 1956년, 서울 서대문 적십자병원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한 천재화가 이중섭. 암흑의 시대에 한 여인의 남편으로, 두 아이의 아버지로, 불꽃같은 예술혼을 불태운 화가로 살아야 했던 그의 40년 생애는 그 자체가 시대이자 역사이며 예술이었다. 가난과 순수, 열정과 불운의 대명사로 불리는 그이지만 그 술한 결핍을 환희와 낙천으로 환치해 예술작품을 탄생시켰던 불면의 시간들을 『난설헌』의 작가 최문희가 감동적으로 되살려내고 있다. 아내 남덕과의 사랑과 이별, 사랑하는 두 아들과의 짧은 행복과 긴 기다림, 1.4후퇴 때 북한에 두고 온 어머니에 대한 죄의식과 그리움부터 화가로서의 바탕이 되어준 스승 임용련과 마지막까지 병상을 지키며 예술혼을 함께 나누었던 지기 구상 시인까지, 이중섭을 이루었던 모든 사람과 사연들 선연하게 되새겨져, 마침내 인간 이중섭의 깊은 숨결이 뜨겁게 되살아오는 소설이다.

언어천재 조승연의 이야기 인문학

조승연 저 | 김영사on



조승연표 인문학의 첫 번째 키워드는 ‘언어’다. 영어, 이탈리아어, 불어 등 전 세계의 7개 언어를 공부하면서 그가 얻은 깨달음은 바로, ‘언어는 사람 공부’라는 것이다. 조승연표 인문학의 두 번째 키워드는 ‘이야기’. 공부란 재미있어야 한다. 조승연은 인문학 역시 재미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시간과 공간을 가로지르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특유의 유티 넘치는 문체로 풀어본 이 책은 인문학의 참 재미를 제대로 느끼게 해줄 것이다.

수학자의 아침

김소연 저 | 문학과지성사

1993년 등단한 후 지금까지, 세 권의 시집을 통해 서늘한 중에 애뜻함을 읽어내고 적막의 가운데에서 빛을 밝히며 시적 미학을 탐구해온 시인 김소연의 네 번째 시집이다. 시인이 꿈꾸는 반역은 불온하나 희망적이다. 대상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시 행간에 깊이 스며 있기에 그렇게 믿어도 좋을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시인의 마음이 바라보는 내일은 항상 아득한 거리로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번 시집은 슬픔으로 가득하다. 김소연은 거둬 한 줍 물결로 저 먼바다를 연습하고 실천해보지만 그 일의 무상함에 문득문득 소스라친다.



결혼면허

조두진 저 | 예담



늘어나는 이혼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고 있으며,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듯이 결혼면허를 따라 결혼할 수 있다는 발상이 기발하면서도 재미있는 소설이다. 2016년 가상의 한국, 결혼생활이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이 높아진 시대다. 늘어나는 이혼율과 그로 인해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 등의 여러 가지 사회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정부는, 결혼하려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자격시험을 통과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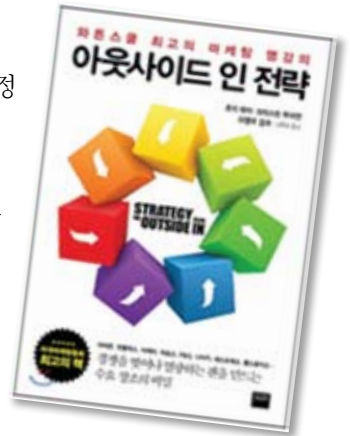
새로운 금융시대

로버트 쉐러 저/노지양, 조운정 공역 | 알에이치코리아 (RHK)

2013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쉐러 예일대 교수는 이 책을 통해 금융은 결코 돈을 빼앗는 약탈자가 아니며 인류문명을 진보시킨 주체이고,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금융권 참여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설파할 때는 매서운 자아비판을 보여주고, 금융의 사회적 순기능을 설명할 때는 행동심리학, 신경정신학, 미학 이론을 넘나든다. 우리는 어찌 되었건 직·간접적으로 금융의 영향권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 로버트 쉐러는 금융이 인간이 만든 미완의 발명품을 전제하고, 앞으로 제대로 된 발명품을 만들어 쓰는 게 가장 실리적 방법이라고 이야기한다.

아웃사이드 인 전략

조지 데이, 크리스틴 무어맨 공저/김현정 역/이명우 감수 | 와이즈베리



펜실베니아대학교 경영대학원 와튼스쿨 교수이자 미국마케팅협회 회장을 역임한 조지 데이 교수는 존슨앤드존슨, P&G, 피델리티, 시스코, 월마트, 아마존, 애플, 이케아, 테스코 등 불황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을 연구했다. 그 결과 지속적인 고객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 아웃사이드 인 전략을 채택한 기업들만이 살아남았다고 역설한다. 책은 아웃사이드 인 전략의 핵심과 실행을 위한 세부적인 매뉴얼을 제시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때 성공한 기업이 기업의 내부적 관점에 집중하는 딜레마에 빠지지 않고,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고객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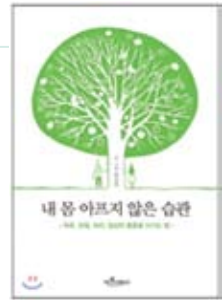
청결의 역습

유진규 글/미디어초이스 방송제작 | 김영사on

방송 프로그램 「SBS스페셜, 99.9% 살균의 함정」의 원작으로, 청결 강박에 사로잡힌 현대인들이 보지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을 밀도 있게 전하고 있다. 저자는 인간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좋은 세균까지 모두 죽임으로써, 우리 몸의 면역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켜 무해한 물질을 공격하고 이를 중지시키지 못해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했다고 말한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아토피, 비염, 천식과 같은 면역질환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면역질환의 늪을 탈출하기 위해 '좋은 세균'의 역할과 '좋은 세균'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기적에 주목할 것을 전한다.

내 몸 아프지 않은 습관

황윤권 저 | 에이미팩토리



척추관절 전문의가 전하는 관절 건강 지침서. 척추와 관절, 허리 등의 통증을 이기는 생활 습관을 알기 쉽게 소개한다.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무릎 관절염 요통, 오십견, 좌골신경통, 꼬리뼈 증후군, 손목터널 증후군. 테니스 엘보, 무지외반증, 척추측만증, 만성두통, 이명, 알레르기성 비염 등 만성 통증 질환이 단기간에 급속도로 많아졌다. 저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진실이며, 많은 의사들이 원하는 진료가 유일한 탈출법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면서 값비싼 기계 검사, 증세와 원인은 따져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수술부터 권하는 병원, 특효라는 약물 치료, 온갖 화려한 치료법에도 완치되었다는 사람이 없는 현실을 지적한다.



도서 관련 문의 : YES24인도네시아 이준호
021-2902-1714(직통105) / 0815-830-3543 /
help@yes24.co.id / www.yes24.co.id

2013년 한인회 임원찬조금 명단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납입 연도	금액	
					USD	IDR
1	한인회명예회장	승은호	KORINDO GROUP	2013	20,000	
2	한인회회장	신기엽	PT. HANINDO EXPRESS UTAMA	2013	20,000	
3	한인회수석부회장	조규철	PT. DONG JUNG INDONESIA	2013	10,000	
4	한인회부회장	강희중	PT. SUNG TECHNOLOGY	2013	5,000	
5	한인회부회장	김영욱	PT. GAYA INDAH KHARISMA	2013	5,000	
6	한인회부회장	김주철	PT. STAR CAMTEX	2013	5,000	
7	한인회부회장	김희년	PT. ETRADING SECURITIES	2013	5,000	
8	한인회부회장	박재한	PT. BUSANA PRIMA GLOBAL	2013	5,000	
9	한인회부회장	엄정호	PT. ING INTERNATIONAL	2013	5,000	
10	한인회부회장	이지현	PT. ZIMMOAH MARINE TRANS	2013	5,000	
11	한인회부회장	이진수	PT. SUNG BO JAYA	2013	5,000	
12	한인회부회장	이호덕	PT. VICTOR JAYA RAYA	2013	5,000	
13	한인회부회장	조용우	외한은행	2013	5,000	
14	한인회부회장	최광수	PT. BIG STAR	2013	5,000	
15	한인회부회장	최상학	우리은행	2013	5,000	
16	한인회부회장	황의상	PT. INWHA INDONESIA	2013	5,000	
17	한인회자문위원	강덕재	PT. LEMBU SWANA PERKASA	2013	1,000	
18	한인회자문위원	김병철	PT. MISUNG INDONESIA	2013	1,000	
19	한인회자문위원	김석래	PT. INACON LUHUR PERTIWI	2013	1,000	
20	한인회자문위원	김영만	PT. KOREA INDONESIA PETROLEUM CO.,LTD	2013	1,000	
21	한인회자문위원	김영주	PT. DEWA CITRA SEJATI	2013	1,000	
22	한인회자문위원	김우재	PT. KOIN BUMI	2013	1,000	
23	한인회자문위원	박동희	PT. TRIKARYA ALAM	2013	1,000	
24	한인회자문위원	박현식	PT. DONGAN KREASI INDONESIA	2013	1,000	
25	한인회자문위원	석웅치	PT. DAYUP INDONESIA	2013	1,000	
26	한인회자문위원	양영연	PT. TAEWON INDONESIA	2013	1,000	
27	한인회자문위원	오세윤		2013	995	
28	한인회자문위원	엄석준	NEW-WORLD MEDICAL	2013		10,000,000
29	한인회자문위원	이승민	YSM & PARTNERS	2013	1,000	
30	한인회자문위원	이진호	PT. JIN YOUNG	2013	1,000	
31	한인회자문위원	이현상	PT. ROYAL KORINDAH	2013		10,000,000
32	한인회자문위원	배상경	PT. TEBO AGUNG INTERNATIONAL	2013	2,000	
33	한인회자문위원	장주현	PT. INKO PRIMA UTAMA JAYA	2013		10,000,000
34	한인회자문위원	정무웅	코린도장학재단	2013	958	
35	한인회자문위원	조용준	PT. TIGA BINTANG JAYA	2013		10,000,000
36	한인회자문위원	최정남	PT. GLOBAL FIBER INDO	2013	1,000	
37	한인회자문위원	하연수	PT. SEOLIN	2013	1,000	
38	한인회이사	강주석	PT. SERIM INDONESIA	2013	1,000	
39	한인회이사	구자성	일요신문	2013	1,000	
40	한인회이사	김경곤	PT. SUKWANG INDONESIA	2013	1,000	
41	한인회이사	김경국	PT. N E S	2013	1,000	
42	한인회이사	김달수	PT. KIDECO JAYA AGUNG	2013	1,000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납입 연도	금액	
					USD	IDR
43	한인회이사	김도상	PT. HONGIK INDONESIA	2013	1,000	
44	한인회이사	김문호	PT. DADA INDONESIA	2013	1,000	
45	한인회이사	김문환	PT. KASINDO GLOBAL UTAMA	2013	1,000	
46	한인회이사	김상태	SMS GROUP	2013	1,000	
47	한인회이사	김성국	PT. PERTA SAMTAN GAS	2013	1,000	
48	한인회이사	김세형	PT. BTEXB INDONESIA	2013	1,000	
49	한인회이사	김종현	PT. KOIN BUMI	2013	1,000	
50	한인회이사	김준규	PT. CIPTA ORION METAL	2013	1,000	
51	한인회이사	노승원	PT. SGWICUS INDONESIA	2013	1,000	
52	한인회이사	노예범	PT. SAM PUTRA INTI	2013	1,000	
53	한인회이사	박성대	PT. HANJIN INDONESIA	2013	1,000	
54	한인회이사	배정옥	PT. AGRI TRADING INVESTMENT	2013	1,000	
55	한인회이사	서영율	PT. PRATAMA ABADI INDUSTRI	2013	1,000	
56	한인회이사	송판원	PT. KORYE POLIMER	2013	1,000	
57	한인회이사	신규태	PT. INDO SUNG IL JAYA	2013		10,000,000
58	한인회이사	안상영	PT. DAEHWA LEATHER LESTARI	2013	1,000	
59	한인회이사	안선근	U.I.N UNIVERSITY	2013	1,000	
60	한인회이사	안홍재	PT. KOLON INA	2013	1,000	
61	한인회이사	양태화	PT. BOSUNG INDONESIA	2013	1,000	
62	한인회이사	오세명	PT. SUNG LIM CHEMICAL	2013	1,000	
63	한인회이사	유주완	PT. FEEL BUY INDONESIA	2013	1,000	
64	한인회이사	윤석환	PT. SUNG SHIN INDONESIA	2013	1,000	
65	한인회이사	이상일	PT. U I B	2013	1,000	
66	한인회이사	이석태	PT. U F U	2013	1,000	
67	한인회이사	이종억	KOREAN AIR LINE	2013	1,000	
68	한인회이사	이종현	PT. LEO KORINSIA	2013		10,000,000
69	한인회이사	이주한	PT. MEDISON JAYA RAYA	2013	1,000	
70	한인회이사	이준하	PT. DAELIM INDONESIA	2013	1,000	
71	한인회이사	이지완	PT. JIN YOUNG	2013	1,000	
72	한인회이사	이철훈	PT. INDO BOX UTAMA JAYA	2013	1,000	
73	한인회이사	임성용	PT. MIRINA NUSANTARA	2013	1,000	
74	한인회이사	임성필	PT. LSP INDONESIA	2013	1,000	
75	한인회이사	전민식	PT. POWERTECH INDONESIA	2013	1,000	
76	한인회이사	정주성	PT. DEASUNG HI-TECH	2013	1,000	
77	한인회이사	정철주	PT. DONG-IL INDONESIA	2013	1,000	
78	한인회이사	조호신	PT. SONERGY	2013	1,000	
79	한인회이사	차상만	PT. HANKOOK CERAMIC INDONESIA	2013	1,000	
80	한인회이사	현정규	PT. MEKAR SAMMI JAYA	2013	1,000	
81	한인회이사	홍기호	PT. AURORA INT'L CO.	2013	1,000	
82	한인회이사	황윤홍	자카르타경제일보	2013	1,000	
총 금액					\$175,953	Rp60,000,000

〈한인회에서 알립니다〉

한인사회의 숙원사업인 “(가제) 인도네시아 한인진출 70년사” 발간과 관련하여,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재인도네시아 한인문예총’의 협조 하에, 현재 ‘편찬위원회’를 결성하고 있습니다. 아래 직능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열의를 가지고 계신 재 인도네시아 동포 중, 이 역사적인 과업에 동참하실 희망자들을 기다립니다.

-아 래-

분야	내 용	소요인원
집필진	연대별, 단체별, 업종별, 사회분야별	4~5명
편집진	일반편집, 디자인	10여명
자문단	역대 한인회사무국장, 원로 동포	4~5명
감수	감수, 교정 전문가	4~5명

☎연락처

- ▶한인회 사무국장 김재민 0818 870242
- ▶한인문예총 회장 김문환 0811 901983

2013년 한인회 개인외비 납부 명단 (접수순)

번호	성 명	납입 연도	금액(Rp)
1	김 영 선	2013	300,000
2	승 은 호	2013	300,000
3	신 기 엽	2013	300,000
4	이 인 호	2013	300,000
5	김 영 환	2013 - 2017	1,500,000
6	김 재 민	2013	300,000
7	신 충 일	2013	300,000
8	홍 문 기	2013	300,000
9	홍 석 영	2013	300,000
10	조 규 철	2013	300,000
11	정 무 웅	2013	300,000
12	전 영 돈	2013	300,000
13	김 문 호	2013	300,000
14	김 일 영	2013	300,000
15	강 덕 재	2013	300,000
16	최 양 기	2013	300,000
17	황 윤 흥	2013	300,000
18	김 문 환	2013	300,000
19	황 의 상	2013	300,000
20	이 완 식	2013	300,000
21	임 성 용	2013	300,000
22	강 회 중	2013	300,000
23	장 천 수	2013	300,000
24	승 범 수	2013	300,000
25	최 석 일	2013	300,000
26	이 현	2013 - 2017	1,500,000
27	박 영 규	2013	300,000
28	지 동 주	2013	300,000
29	한 상 재	2013	300,000
30	이 병 기	2013	300,000
31	엄 중 환	2013	300,000
32	송 광 장	2013	300,000
총 금 액			Rp12,000,000

[안인외 외비 납부 안내]

“내가 자발적으로 내는 외비는 따뜻한 이웃사랑입니다”

한인회 회칙에 명시된 정회원 연회비는 개인회비와 법인회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회비는 상공회의소의 법인회비(회원제)가 있는 관계로 법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2013년 8월부터는 한인회에서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기 납부하신 법인회비는 본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불우이웃돕기에 전액 사용하겠습니다.

개인회비는 가구당 매년 Rp. 30만 로

책정이 되어 있으며 납부되는 정회원 회비는 한인회의 모토인 나눔으로 축복받고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한인사회를 위해

불우이웃(한인, 인도네시아인)을 돕는데 전액 쓰여질 것 입니다.

매월 적립되는 금액과 사용내역은 한인뉴스와 한인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밝힐 것입니다.

한인회원 모두의 의무인 회비납부를 통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내실 곳>

재 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신기엽 배상

	우리은행 BANK WOORI INDONESIA	외환은행 KEBI	하나은행 BANK HANA
계좌번호	RP A/C NO: 100-913-000538	RP A/C NO: 220 200 5949	RP A/C NO: 001 00 11 002049
예금주	ASOSIASI KOREA	YAYASAN ASOSIASI KOREA	

회원증 발급

회원이 되신 분(기 납부하신 분 포함)께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구비서류: 여권 혹은 키타스 사본, 사진1매(크기에 상관 없음)

안인외사무국 한국직원을 구합니다!

모집부문 : 한인회사무국
모집인원 : 1명 (인도네시아 국적자 우대)
자격요건 : 남자20대-30대
컴퓨터 능숙자 (홈페이지관리)
인니어, 영어가능자

문의처 : 재 인도네시아 한인회
전 화 : (021) 521 2515
E-Mail : yasko@indosat.net.id

12월의 영화 추천작



2004년 10월 30일 프랑스 오를리 국제공항, 30대 한국인 주부 마약 운반범으로 검거! 대한민국이 외면한 안타까운 사건이 공개된다!

“저는... 집으로 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딸이 세상 전부인 평범한 아내. 여권에 처음 도장이 찍히던 날, 그녀는 프랑스에서

마약범으로 몰려 교도소에 수감된다.

한국에서 비행기로 22시간, 대서양 건너 12,400km 지구 반대편 프랑스 외딴 섬 마르티니크 교도소..

말도 한마디 통하지 않는 낯선 곳... 그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집으로 가는 길

“제발.. 제 아내를 돌려 보내주세요.”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세상 전부인 평범한 남편. 그는 친구의 배신으로 집과 어렵사리 마련한 가게 그리고 아내마저 잃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가이아나에서 프랑스로 원석을 운반한 아내. 그러나 그것은 마약이었다.

한국에서 비행기로 22시간, 대서양 건너 12,400km 지구 반대편 프랑스 외딴 섬 마르티니크 교도소..

지도에서도 찾기 힘든 머나먼 곳... 그는 아내를 되찾을 수 있을까?



마침내 역사상 가장 치열한 최강의 전쟁이 시작된다!

사나운 용 스마우그가 빼앗아간 동쪽의 ‘외로운 산’ 에레보르 왕국을 되찾기 위해 뜻하지 않은 여정을 떠나게 된 호빗

‘빌보 배긴스’와 ‘간달프’, 난쟁이족 왕족의 후예 ‘소린’이 이끄는 13명의 난쟁이족, ‘레골라스’와 그의 파트너 ‘타우리엘’이 속해있는 엘프족의 합세로 더욱 강해진 원정대는 외로운 산으로 가는 길에 어둠의 숲에서 모습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베오른과 거대한 거미떼를 만나고, 난쟁이들에게 적대적인 엘프족에게 잡혔다가 도망쳐 호수마을을 지나는 등 다양한 모험을 하게 된다.

호빗, 스마우그의 폐허

‘호빗: 스마우그의 폐허’는 마침내 시작된 사나운 용 스마우그와의 본격적인 전쟁을 그린 판타지 블록버스터. ‘반지의 제왕’ 시리즈와 이어지는 ‘호빗’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역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액션 스펙터클을 예고한다. 특히 전 세계가 기다려온 위대한 여정의 끝, 마침내 시작된 거대한 용 스마우그와의 전쟁을 통해 최고의 전율을 선사할 것이다.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3030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긴급전화

경찰(범죄 및 도난신고)	110
구급차	118,119
전기고장 및 문의	123
전화고장 및 문의	147
화재	113
수도고장및문의	5798 6555/577 2010
열차시간 문의	121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땅그랑한인회	5532 5555
반동한인회	022 2021566
발리한인회	0361 723 070
브카시한인회(총무)	0811 847 556
보고르한인회	7782 8886
수라바야한인회	031 568 8690~1
수까부미한인회	0266 736 441
스마랑한인회	0298 522 296
메단한인회	0811 608 724
족자한인회	0274 376 741
바탐한인회	0778 392 01
보고르한인회	7782 886
찌까랑한인회	8990 9917
한국부인회	526 087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11708882
국악사랑단체	0811 90 2003
즈빠라한인회 (총무 조영성 0813 90323355)	0291 598593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벼룩시장	8983 1908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교육기관

한국국제 학교	844 4958~61
JIS	750 3640
NJIS	450 7660
BIS	745 1667
간디국제 학교	690 9902
JIMS	744 4864
헤리티지인터내셔널스쿨	08129712306

●유치원

bambino (위자야)	720 3356
(빠뜨라 꾸닝안)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끌라빠가딩)	723 0807 471 8047
(땅그랑)	558 7227
샌즈몬테소리스쿨	720 6629

●은행

수출입은행	525 7261
외환은행	574 1030
우리은행	515 1919
하나은행	522 0222~3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예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까랑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20 0240
한마음교회	739 5035
한인성요셉성당 (찌까랑 공소)	7884 3782 8911 7547
불교>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ISO 인증

품질 환경 안전보건

문의 **573-1576**

 **KMAQA**


MATAARI
TOUR & TRAVEL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연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LIVING A&I**
ARCHITECTURE & INTERIOR

 **In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
주거공간
↓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항공권·호텔·관광·비자

로템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 RODEM TOUR

Tel: (021) 4587 8833 Fax: (021) 293 64168
HP: 0812 967 8131
E: rodemtours@naver.com
rodem_tours@cbn.net.id

참피온



환전
송금업무
높은환율

Tel: (021) 4585 1158
HP: 0815 114 14 119
주소: Ruko Inkopal Block C No.75
Kelapa Gading

최상의 재료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그 이름에 남아 모시겠습니다



佳肴 Gahyo

(021)9127-2262
SCBD Jl. Jend. Sudirman Kav. 52-53 Lot. 6 Jkt
(021)4587-6626
Sport Mall Kelapa Gading Blok A 26-27 Jkt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중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가구

조지언 퍼니처 766 0364
아이니갤러리 581 4690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
한국건강원 5579 6411
황소건강원 5576 7628
진영삼봉나와 8234 565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름황성주생식 5296 1522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끌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킵온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건설 설비 전기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꽃집 0816 733 810

●기타

바틱하우스 0816 770 143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11 85 3156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끌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 119 3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미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퀸덤 7279 2067~8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JAKARTA BIZ DAILY
 Patra Jesa Tower 15th Fl. #1501A
 Jl. Jend. Gatot Subroto Kav. 32-34, I Jakarta Selatan - INDONESIA
 Tel : +62-21 5290-0117 (Hunting) | Fax : +62-21 5290-0229
 E-mail : news@jktbizdaily.com

인도네시아 유일의 한국어 경제일간지

자카르타경제일보

구독문의 (021) 5290 0118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精과誠과 德을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빠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Adhi Graha (Surveyor Indonesia)
 Jl. Jend. Gatot Subroto Kav.56, Jakarta 12950
 15th Floor Suite 1503
 Tel. 62-21-2941-0780 (hunting) Fax. 62-21-2941-0775
 E-mail: doowang@ctbn.net.id, doowangjkt@gmail.com

Salon & Beauty Shop 2728 6969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병원

관준한의원 722 7745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신농씨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짜까랑) 8990 1911

●비디오

비디오 서울 723 2088
 한양 비디오 450 4364
 K-마트 비디오 688 22040

●사진관

ELGA 포토스튜디오 521 0862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골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짜까랑) 7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 723 3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골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무항생제, 무화학약품, 순수곡물사료
 닭을 행복하게 하는 양계법
 최고의 닭고기 CharmChick

Charm Chick
 Nature's Choice

같이보여도 속부터 걸까지 다른 Quality
 참치는 참닭, 진짜닭입니다

Sucofindo의 무대장관, 무실모래라 인증
 인니 농축산부의 무항생제 인증
 자카르타 주정부의 1등급 품질인증

판매처 **무궁화, K-마트,
 뉴서울슈퍼, 한일마트**

dailyindonesia.co.kr



데일리인도네시아

그대가 있어
 따뜻하다...

KJ 건축·인테리어

- 1. 사무실전문 인테리어공사
- 2. 아파트 인테리어공사
- 3. 레스토랑 인테리어공사

Tel : 021-7590-6767

HP : 0821-2564-1777

E-mail : choimg21@gmail.com

주소 : FATMAWATI LOTTE MART

RUKO BLOK G/03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725	2122
위자야마트	726	9049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호(Sudirman)	9127	2262
가호(Kelapa Gading)	4587	6626
강강수월래	380	5217
강나루(땅그랑)	5576	8222
강촌(땅그랑)	5579	3681
경복궁(찌까랑)	8990	8822
고려가든(스마랑)	(024) 746	4090
고목(찌까랑)	897	3463

고인돌	452	5597
고주몽	7279	6709
국일관	822	8974
권명희복집	720	7464
금수강산(찌까랑)	8983	3282
기소야	574	7581
뉴코리아타워	3193	0311
뉴서울(땅그랑)	546	0845
다리아분식	722	0276
대감집	726	4356
돌아온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또래오래치킨(버까시)	8243	4848
레드토마토(EX몰)	315	1033
(뽕독인다)	7592	0654
마포	7279	2479
만나	821	5279
만리장성(땅그랑)	552	1210
명가면옥(땅그랑)	552	2745
모나리자(찌까랑)	8990	9570
물레방아	8990	6956
목우촌	450	4155
미르(맨하튼호텔)	5296	1201
미추홀(선레이크호텔)	6583	1472
버까시서울(버까시)	8895	7604
부산횃집(끌라빠가딩)	4585	1156
산들(땅그랑)	5579	5821
산타코리아	722	9921
싼티카 클래식(버까시)	8459	9282
상록수	8983	6047
서동(찌부부르)	8459	9858
서라벌	572	3475
서울가든	(0361)768	323
서울일식(땅그랑)	546	0845
서울팔레스	(024) 447	414
소양(찌까랑)	897	2231
송가네 삼계탕(끌라빠가딩)	4585	4422
송도(리뽀찌까랑)	8990	1474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청(끌라빠가딩)	4585	1115
스카이 코리아(공항)	550	9158
시티서울	5289	7506
신도시	897	3615
아랑 22	522	7201
아랑갈비	8983	6047
아랑/스시 코리아	453	1679

아리랑(리뽀찌까랑)	8990	1662
아리아분식	722	0276
아랑갈비(찌까랑)	8983	6047
아리랑(찌까랑)	8990	9917
압구정	2905	2925
이스타나코리아	314	4501
어울림	551	4853
아마(땅그랑)	547	2722
어울(땅그랑)	551	4853
본가	739	6229
우리들(땅그랑)	552	4047
울엄마	920	7244
원조식당(수까부미)	4585	1156
원치킨호프(땅그랑)	5577	6770
2002 레스토랑(땅그랑)	5940	4189
장수대	726	4570
장터(끌라빠가딩)	4585	4302
종가집	8990	6956
주막레스토랑(찌까랑)	8990	0514
카사블랑카	8241	4949
코레아나	390	4568
코리안하우스(찌부부르)	844	4786
코리안하우스(반동)	(022) 203	1626
코리안우스(횃집)	844	5877
타임(까라와찌)	5577	6324
태극관	822	7011
토담	521	0230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찌까랑)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청마루(끌라빠가딩)	452	5597
청해수산	739	7032
초가(가라와찌)	552	6043
춘하추동	5940	2846
팡팡치킨	720	7275
하나레스토랑	4482	0081
하나마트 식당	8459	0064
하나비(리뽀찌까랑)	8990	3334
하나정(땅그랑)	5577	6457
하림각	551	8511
한강(Wolter Monginsidi)	7278	7802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성관(끌라빠가딩)	453	3033
한술	5290	3417



한양가든	521 2522
한양가든(골라빠가딩)	450 2071
한우리(찌부부르)	8459 2871
할매손칼국수(골라빠가딩)	4585 3398
함지박	739 6958
향수	645 2378
해물촌	451 3761
해운대(땅그랑)	5577 8527
황소가든	8240 9670
황소가든	(0264)313 011
Ah Yat 레스토랑	5705 333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BBQ(골라빠가딩)	4584 7444
Esse MM2100	8998 1564
Lobster & King Crab	515 5060

●신문

동아일보	720 6802
데일리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나프레스	4586 9199
일요신문	452 5655
타임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일보	5290 0117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시티안경원	726 5009

●여행사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4 0422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뎀)	0778 462 500
사랑투어	3192 4449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인터넷

Net2Cyber	576 3490
S-Net	7080 7886
넥스텔링크	525 3187

●인테리어

H2 Stuff	4586 7860
----------	-----------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7590 676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719 0247
아네카 트랜스	520 4181
트랜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증권/보험

삼성화재	520 5511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6242
키움증권	526 1326
E - TRADING	574 1442
LIG 손해보험	391 3101

●컨설팅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쁘찌까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퓨릭컨설팅	5596 3213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Reading Revolution	722 0833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 하숙집

고향집 하숙	83701492/081511597510
레저게스트하우스(땅그랑)	0811143437
쉴터하숙	726 8775
일박이일하숙집	424 0953
교민하숙	0816 163 5558
미니호텔 뽀독인다	0821 2592 7000
갈릴리게스트하우스	522 4666
자카르타게스트하우스	724 6347
세명하숙(BL. M)	0856 9226 9933
Full House	0818 901 609

• 학원/교육업

대교인도네시아	5292 0911
다니엘아카데미	22 0686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5 1150 6664
박학천논술	4586 7844
뽀독인다아카데미	7590 5773
에세드라이트스쿨(리쁘까라와찌)	546 4531
예원	720 8783
인재서당	739 7153
종로학원	7883-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3582 0077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한인예총

(회장 김문환)	0811 901983
미술협회(이은수)	0821 1414 2244

음악협회(김순재)	0856 1376677
어린이합창단(안영수)	0811 900 5639
라뮤즈합창단(유지영)	0813 98689802
서예협회(제종경)	0811 830477
월화차문화원(이선주)	0821 11794242
색소폰동우회(배종문)	0816 881423
문인협회(사공경)	0816 1909976
한바패(박형동)	0811 149 586
루시플라워(최정순)	0811 834 026
사진협회(민영기)	0811 177503
국악사랑(장방식)	0811 902003
헤리티지(이수진)	0816 1300210
색동회(강희중)	0816 798221

• 항공

대한항공(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시내)	572 1381~3
(공항지점)	5591 3229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상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온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 51158
환전	712 8556

발 리 (지역번호 0361)

• 한인단체

재발리한인회	081-2379-39452
--------	----------------

•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	---------

•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	---------

•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	---------

•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INDA TOUR	286 90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FIN DONGHWA TOUR	847 1966
DREMLAND TOUR	745 1961
DARMA BALI TOUR	848 0030
KOURUS TOUR	744 7200
M. TOUR MAIL	725 800
NUSA TOUR	285 122
I TOUR	261 105
MATAHARI KOREN TOUR	703 479
MARIN TOUR	224 010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TOUR	288 999
U2 Bali Holiday TOUR	710 731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 식당

그릴하우스	(0361) 710 374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IMPANG SIUR)	889 0870
대장금(SANUR)	918 1888
라리스	727 405
부가	805 1212
서울가든(부두굴)	(0362) 342 9220
한일관	727 250
인터내셔널라운지	759 368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MAN&WOMAN VILLA	847 6521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VILLA NAMASTE	755 755
AISIS VILLA	862 8777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AVENUE	761 313
762 327	
AISIS (NUSADUA)	770 256
AISIS (SANUR)	287 257
COLAGEN BUTY SHOP	885 1770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POLO SHOP(AIRPORT)	759 368
BALI TEGEHE AGUNG	298 643
CLEAN & GREEN	289 070
SUN JEWELLERY	761 537
SINAR MUTIARA BALI	462 061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반동 (지역번호 022)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동렌트카	0858-1111-4000
반동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동컴닥터	0821-2222-6000


창립 20주년 행사

고객님의 사랑과 성원으로
창립 20주년 감사 특별할인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20여년간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 진주가 되겠습니다.



-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90% 환매보장 ◆ 금 매입·매각 가능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세트(다이아, 진주)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021-7278-8327 HP. 0888-110-2022

본 점(수출/무역)
HP. 0816-873-176
HP. 0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Samsung GALAXY Note 3 + Gear

DESIGN YOUR LIFE



*Life is a journey of creation.
Make your mark.*

Available in two colors:



Samsung GALAXY Note 3 + Gear

- Featuring the latest technology of Android 4.3 (Jelly Bean)
- Superior performance with 1.9 GHz Quadcore + 1.3 GHz Quadcore
- Crystal clear display with 5.7" HD Super AMOLED
- Multitask easily with new S Pen and Multi Window features
- Exclusive design with premium back cover

KORINDO P1ants the Green



Green Tomorrow

파푸아 오일팜 농장
Asiki, Papua Indonesia



30년의 선물

이 검은 돌이 주는 놀라운 혜택을 아십니까

수 천 만년 땅 속에 묻혀있던 이 검은 암석들이
KIDECO의 기술로 이 땅으로 나오면
비로소 그때, 우리가 사는 도시 구석구석으로
따스한 빛과 열기가 되어 다닙니다.

참으로 긴 세월, 지난 30년-
자원개발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누빈 사람들, **KIDECO**
우리의 열정과 독심이 당신의 삶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The Most Reliable Coal Supplier**
PT. KIDECO JAYA AGUNG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삶 속에
KIDECO가 함께합니다.

KIDECO는,

동부 말리안탄 Pit에서 생산량규모 세계 5위권의
유연탄광 파시르 광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우량 글로벌 자원개발 전문기업  **PT. KIDECO JAYA AGUNG**

